

# 第198回國會 教育委員會會議錄 第3號

國會事務處

日時 1998年10月20日(火)

場所 教育委員會會議室

## 議事日程

1. 1997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  
가. 教育部所管

## 審査된案件

1. 1997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  
가. 教育部所管 ..... 1面

(14시12분 개의)

○委員長 咸鍾漢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교육위원회를 開議하겠습니다.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立法調査官 文濟豊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委員長 咸鍾漢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당위원회에서 그동안 수고해 오신 한나라당 소속 曹雄奎委員이 당위원회를 辭任하고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鄭東泳 議員이 당위원회에 補任되었습니다.

鄭東泳 委員!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東泳委員 국민회의 소속 鄭東泳 委員입니다.  
잘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의 政策決定과 豫算編成 그리고 그 집행을 위해서 필요한 절차이기에, 특히 최근에 발생한 IMF사태는 이런 정책과 예산집행에 대한 평가의 시스템이 잘못되고 또한 평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평가가 政策決定과 豫算編成에 반영되지 못하여 일어난 결과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1997年度 教育部豫算은 18조8,000억원에 달하며 정부예산의 약 19%를 차지하는 막대한 예산입니다. 이러한 예산은 그동안 우리 교육의 개혁과 발전을 위해서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教育環境과 教育內容등에 있어서 개선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우리의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편성되고 집행되고 있다는 것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IMF사태로 인하여 國家財政이 점점 더 곤란해 지고 있으며 교육에 대한 예산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결산은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교육부장관 또는 각 기관장에게 예산집행에 대한 재량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예산심의보다는 決算審議가 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시어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좀더 심도있는 결산에 대한 심의를 해주셔서 우리 위원회의 國政監査와 豫算審議 기타 政策審議에

1. 1997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  
가. 教育部所管

(14시15분)

○委員長 咸鍾漢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年度 教育部所管 歲入歲出決算을 上程합니다.

오늘 1997년도 교육부소관 결산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決算에 대한 審議는 그동안 행정부가 집행해 온 정책과 예산집행에 대한 타당성, 적법성, 그리고 효율성을 검증하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기회가 되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정부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까.

李海瓚 長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教育部長官 李海瓚 教育部장관이 提案說明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咸鍾漢 委員長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1997년도 教育部所管 歲入歲出決算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知識基盤社會로 특징지워지는 21세기에는 국민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적 자산이 한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명사적인 변화의 조류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발전의 핵심요소인 지식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세계 선진각국이 教育改革을 국정의 최우선과제로 삼아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교육부에서도 그동안 나름대로 일관되고 지속적인 교육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세기의 전환을 맞는 새 정부에 들어와서는 새로운 세기,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教育의 基本目標를 사람다운 사람을 기르는 교육, 지식·정보화사회를 선도하는 교육,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교육에 두고 教育改革을 加速化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해온 개혁과제들을 이어 받아 교육현장에서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주변상황과 여건의 변화를 감안하여 부분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큰 틀속에서 지난 한해동안 교육부가 추진해온 主要教育施策을 教育財政 運用과 연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는 1997년도 교육정책의 기초를 「교육개혁의 지속적 추진을 통한 창의적이고 인간다운 사람육성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國家競爭力 強化」에 두고 각종 교육시책을 펴왔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初·中等教育部門에서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간육성을 목표로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선택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第7次 教育課程 改正을 추진하였고 교실수업의 혁신을 통한 학습

자의 개성, 욕구, 능력에 따른 자기 주도적 학습태도 함양을 위해 열린교육 시범학교 운영과 교사의 교과교육 연구활동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缺食兒童에 대한 中食支援擴大와 특수학교 시설 및 실험실 습기자재 확충등을 통하여 疏外階層學生에 대한 教育福祉次元에서의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고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地方教育支援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教育環境改善事業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해 왔습니다.

시·도교육청 평가결과를 재정지원과 연계함으로써 地方教育行政機關의 責務性을 提高하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자구노력을 유도하였습니다.

둘째 大學教育部門에서는 대학별로 특성을 살리면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우수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추진하였고 대학이 다양한 방법으로 入學銓衡을 실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초·중등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였으며 대학시설 설비의 확충과 현대화를 통하여 대학교육의 내실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대학생에 대한 獎學金 및 學資金 融資를 통하여 고등교육기회를 확대함과 아울러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을 평가와 연계함으로써 大學의 責務性을 提高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셋째 平生·職業教育部門에서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學點銀行制를 도입하였고 직업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職業教育訓練促進法, 資格基本法, 韓國職業能力開發院法 등 職業3法을 제정하고 한국 직업능력개발원을 설립하였으며 현장 적응력을 지닌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공업계고등학교의 수용능력을 확대함과 아울러 실업고의 특성화·내실화를 추진하는 등 高等學校段階에서의 職業教育支援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양질의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대학과 산업대학의 지원도 강화하였습니다.

넷째 教育情報化·世界化部門에서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하여 초·중등학교의 정보화 기반구축 사업과 대학의 학술·연구 정보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초·중등학교에 컴퓨터 실습실과 멀티미디어 교육실을 설치하고 초·중등교사에게 컴퓨터를 보급하는 등 미래사회의 주역인 學生과 教師의 情報素養을 향상하는데 중점투자하였습니다.

멀티미디어 교육지원센터의 설치지원을 통하여

學校教育 情報化를 촉진할 수 있는 지원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교원과 학생들의 교육·연구와 학습활동에 관한 정보들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초·중등학교와 대학의 전산망 구축사업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대학에서 전문지식과 창의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尖端學術研究環境을 조성하였고 아울러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초청, 초등영어교사 연수, 국제전문인력 양성사업과 재외동포교육지원 등 世界化와 民族教育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였습니다.

끝으로 한국교육개발원 등 出捐機關과 국제교육진흥원등 直屬機關이 목적사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에 교육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教育財政部門의 주요재정부문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부에서는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 우리의 밝은 미래를 보장하는 국가핵심전략인 教育改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힘써 나갈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教育行政·財政制度를 정비해 나가면서 40만 교육가족이 한마음이 되어 교직사회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자발적으로 교육개혁에 참여하는 가운데 새로운 學校文化를 일구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97년도에 歲出豫算總額이 17조2,431억원을 집행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계별로 결산상황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威鍾漢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企劃管理室長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내용을 보고 알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보고하고 대체토론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教育部企劃管理室長 金成東 1997年度 教育部所管 歲入歲出決算報告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세입세출 결산규모를 말씀드리고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역을 보고한 다음 주요사업 추진실적, 세출예산 이·전용 현황, 세출예산 사고이월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歲入歲出 決算報告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에 있어서 一般會計는 예산액 2,491억원

보다 6.9%가 증가한 2,659억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방교육양여금은 예산액 대비 2%가 증가한 5조 3,797억원이 수납되었고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는 예산액 7,000억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歲出決算은 97년도 教育部所管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결산 총액은 17조2,431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 국고분은 12조 678억원이 집행되었고 지방교육양여금특별회계는 4조4,600억원이 집행되었으며 교육환경개선·재정용자·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는 7,894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259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이상 설명드린 내용을 표로써 요약했습니다마는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會計別 決算內譯을 말씀드리겠습니다.

一般會計중 歲入決算을 말씀드리면 예산액이 2,490억, 수납액이 2,658억원으로써 그 차액이 168억원입니다.

그 유형을 보면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국립학교 입학시험 지원자 수 증가로 인한 수험료 수입증가 108억원등이 있습니다.

불납결손액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4억2,000만원입니다.

다음 歲出決算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2조1,658억원이고 예산현액은 12조2,548억원으로써 그 차액은 889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004억원이고 불용액은 86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地方教育讓與金特別會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歲入決算을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5조2,717억원이며 수납액은 5조3,797억입니다. 그 차액은 전년도 이월금 증가로 인해서 1,079억이 되겠습니다.

歲出決算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5조2,717억원, 예산현액은 5조8,39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액은 5,681억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9,399억원이 되겠고 불용액은 4,400억원이 되겠습니다.

收支現況을 말씀드리면 수입은 5조3,797억, 지출이 4조4,599억, 歲計剩餘金이 9,198억, 다음연도 이월액이 9,399억, 순잉여금이 200억원이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教育環境改善特別會計입니다.

歲入決算은 예산액 7,000억, 수납액도 7,000억원

니다. 歳出決算도 예산액 7,000억에 예산현액, 지출액도 7,000억입니다.

財政融資特別會計입니다.

歳出決算은 665억원이고 지출액도 665억입니다.

國有財産管理特別會計입니다.

歳入決算은 위약금 및 선금반환에 따른 이자 반납액 1,4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318억에 예산현액이 437억이고 지출액이 258억원입니다.

支出内譯을 보시면 군산대학교 해양산업대학 이전,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이전, 금오공과대학 이전, 대전산업대학 이전, 밀양산업대학교 이전 등이 되겠습니다.

農漁村特別稅管理特別會計는 예산액이 350억, 예산현액이 350억입니다. 이는 세입정리기한에 따른 이월액이 발생해서 이것이 121억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우선 初·中等教育部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성존중 교육지원에 157억8,800만원을 썼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 개정에 24억, 1종 교과용 도서편찬에 10억, 2종 교과용 도서검정에 1억4,000만원, 초·중등 교육과정평가에 5억8,000만원, 교과 교육 연구활동 지원에 29억3,000만원, 열린교실 수업체제 혁신사업에 30억, 영재교육의 강화 등에 3억, 유아교육 진흥에 3억, 국립대학부속 초·중·고 지원에 50억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학생지원에 184억원을 지원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특수교육 진흥에 160억 그 세부내역은 특수학교 신설, 국립특수학교 시설확충, 국립특수학교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사립특수학교 시설비 지원, 특수교육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중식지원 및 급식관리에 24억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教員福祉 增進에 1,891억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교원자녀 보육시설 확충에 3억 7,500만원, 사립학교 교원 연금부담금 지원에 1,887억을 집행했습니다.

地方教育財政支援입니다. 14조3,041억을 집행했습니다.

교부금이 9조1,442억원이며 봉급교부금, 경상교부금, 증액교부금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양여금이 4조4,599억원이며 교육환경개선 지원에 7,000억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職業教育에 있어서 산업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고교 직업교육 지원에 1,253억원을 집행했

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립공고 시설·설비확충에 136억, 일반계 고교 직업교육 실시에 37억, 工高 '2·1체제' 운영에 27억, 실업계 고교 수용능력 확충 및 내실화에 1,021억, 농어촌 지역 실업계 고교 학과 개편에 30억입니다.

다음 專門技術人力 養成을 위한 전문대·산업대 교육지원에 2,096억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립 전문대·산업대 시설 확충에 685억, 공·사립 전문대학 지원에 888억, 공업계 전문대학 육성지원에 100억, 산업대·전문대 자구노력 지원비에 270억, 산업대·전문대 연구소 지원등에 52억, 사립 산업대 기자재 확충에 10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직업능력개발원 설치운영에 50억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大學校教育部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大學教育의 內實化에 7,439억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국립대학 시설확충에 2,710억,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에 1,000억, 공·사립대학 시설·설비확충에 1,198억, 사학진흥기금에 900억, 교육차관사업에 1,614억원을 집행했습니다.

大學의 多樣化 特性化에 1,50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공과대학 중점지원에 400억, 국·사립대 자구노력지원에 900억, 대학원 중점지원에 200억원을 집행했습니다.

大學의 教育·研究力 強化에 2,127억원을 집행했습니다.

국립대 교원연구비 보조에 580억,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1,199억, 박사후 연수과정 지원에 80억, 외국 석학과의 공동연구 지원 25억, 고전국역사업 지원에 25억, 국제학술지 발행지원에 5억, 대학연구소 지원에 211억 등을 집행했습니다.

大學生 支援에 359억원을 집행했습니다. 학자금 융자 이차차익보전에 68억,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에 124억, 사도장학금 지원에 141억, 대학원생 연구 장학금 지원에 22억, 대학생 학·예술 활동 지원에 3억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情報化·世界化 및 平生教育 部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화 사업에 545억원을 집행했습니다. 멀티미디어교육지원센터 설립·운영에 123억, 첨단학술정보센터 운영지원에 36억, 대학교육정보화 추진 지원에 35억, 초·중등교육 부문 정보화교육 기반 구축에 303억원을 지원했고 그 내역은 초·중등학교 전산망 구축에 25억, 정보화교육 기반구축에 168억, 초·중등교원 PC보급에 110억입니다. 그리

고 교육전산망 구축에 23억을 집행했고 교육행정 정보화에 24억을 집행했습니다.

世界化 教育에 216억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내용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초청·활용에 48억, 국제 전문인력 양성에 200억, 초등 영어교사 연수지원에 36억, 외국어교원연수원 건립에 36억, 초·중등교원 국외연수에 35억, 해외한국학 진흥에 2억, 국비유학 25억, 국제교류 증진에 12억을 집행했습니다.

在外同胞 教育에 192억원을 집행했는데 그 내역은 재외교육기관 지원에 169억, 재외민족교육관 설치에 23억원을 집행했습니다.

평생교육에 60억원을 집행했는데 학점은행제 운영에 4억9,000만원, 평생교육과정 개설 운영에 3억, 한국방송통신대 케이블 TV강좌 지원에 42억, 학력 인정 사회교육시설 지원에 7억, 학교시설 개방 지원에 6,600만원, 주부교실 운영에 3,000만원,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활성화에 1억4,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出捐金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出捐機關에 474억원을 집행했는데 한국교육개발원에 72억8,000만원, 한국교육방송원에 236억8,000만원, 한국학술진흥재단에 88억,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 75억8,000만원입니다.

다음 國立大病院에 474억원을 집행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출연에 277억, 부산대학교병원 출연에 15억, 전북대학교병원 출연에 20억, 충남대학교병원 출연에 26억, 충북대학교병원에 38억, 경상대학교병원 출연에 20억, 전남대학교병원 출연에 15억, 경북대학교병원 출연에 15억, 강릉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출연에 46억9,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教育改革推進 支援에 6억3,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直屬機關 運營에 143억원을 집행했습니다. 국립교육평가원에 101억, 학술원에 17억, 국사편찬위원회에 2억6,000만원, 교육행정연수원에 1억2,600만원, 국제교육진흥원에 19억7,000만원, 국립특수교육원에 1억5,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歲出豫算 移·轉用 現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전용액은 일반회계에서 이·전용액이 181억,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서 17억입니다.

이·전용 내역은 일반회계에 있어서 주로 교원 인건비 불용액을 다른 기관의 인건비 부족액에 이용해서 쓴 것이 8억9,000만원입니다.

다음 轉用內譯을 보면 주로 인건비 부족, 공공요금 부족 이런 데 충당을 하고 특히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 토지매입비 부족액을 전용해 썼습니다.

다음은 歲出豫算 事故移越 內譯입니다.

일반회계에서 1,004억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에 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와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는 세입정리 기한관계로 발생한 이월액입니다.

사고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004억원, 시설사업 절대공사기간 부족 및 납품기간 부족으로 이월한 것이고 계약체결지연 및 납품지연 등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委員長 咸鍾漢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尙元鍾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尙元鍾 전문위원입니다.

1997會計年度 教育部所管 歲入歲出決算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개요부분은 생략하고 23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初·中等 教育豫算 가운데 제7차 교육과정 개정사업과 각급학교용 1종 교과용 도서편찬 및 2종 교과용 도서검정 사업으로 21세기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위한 제7차 교육과정개정사업과 각급학교용 1종 교과용 도서편찬 및 2종 교과용 도서검정을 위한 事業豫算은 예산현액 53억4,700만원이 편성되어 42억2,700만원이 집행되고 11억2,000만원이 不用처리 되었습니다.

먼저, 第7次 教育課程改正事業은 28억700만원의 예산 가운데 24억6,900만원이 집행되고 3억3,800만원이 불용되었는바, '97년에는 주로 제7차 교육과정개정안 각론 개발연구 38개 과제에 13억9,000만원 및 교육과정 심의·수정 및 책자 30책 발간에 8억7,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교육과정개정안 각론 개발연구비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예산에 편성되어 38개 과제에 집행되었는바, 이 가운데 19개 과제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에 보조금으로 교부 하였습니다.

원래, 教育課程研究事業은 교과용 도서 및 기타 학습지도자료의 연구개발사업등과 더불어 한국교육개발원의 기본사업으로서 학교급간 계열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초·중·고등학교의 교육

내용 개발을 동 기관에 위탁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나, 보조금사업은 성격상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매년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조금예산 계상을 신청하여야 하며, 예산계상의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조금예산이 계상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국가시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補助金の豫算및管理에 관한法律 제5조 및 동시행령 제3조에 의거 한정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가 소요경비의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의 경우 및 재해발생등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와 기타 豫算廳長이 국가의 주요시책 수행상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同法 제14조에는 「國家가 出捐金を 예산에 계상한 기관에 대하여는 출연금외에 별도의 補助金を 예산에 계상할 수 없다. 다만, 재정경제원장관이 사업수행상 특히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教育課程改正事業이 국가사업이라 하더라도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한 기관에 대하여 별도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할 만큼의 불가피성이 보이지 않는 바, 補助金支給은 再考해 볼 여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1종 교과용 圖書編纂 豫算은 15억1,300만원 가운데 10억3,100만원이 집행되고 4억8,200만원이 불용되었는바, 1종 도서편찬 책수감소 및 심의회 축소와 과학교육 지도자료 미편찬에 따른 것입니다.

2종 교과용 도서검정 예산은 4억4,700만원 가운데 1억4,400만원만 집행하고 3억3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는바, 이는 초등학교 영어 교과용 도서검정을 61종 예상하였으나 실제 38%에 해당하는 23종만 검정신청 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英才教育事業으로 '97년도 영재교육강화를 위한 예산은 2억5,000만원으로 이 예산 가운데 1억8,000만원은 영재교육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출연금으로 7,000만원은 英才兒 판별검사도구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7년도의 豫算執行過程을 살펴보면 英才教育센터 설치운영지원을 위한 出捐金은 英才教育센터設置運營費로 지원된 것이 아니고 研究開發費 7,000만원과 더불어 2억5,000만원이 韓國教育開發院 教育政策研究本部내의 英才教育 研究팀에 출연되어 영재교육정책연구등 5개 과제의 研究開發費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6년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豫算에 計上되어 집행되었고 '98년의 경우에는 2억5,000만원 전액이 영재교육센터 설치운영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出捐金の 성격상 사전에 그 사업을 시행할 주체인 韓國教育開發院 豫算에 계상하여 정부출연금의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하나 일종의 限時的 下部組織에 별도의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하여 지원하고 있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英才教育에 관한 研究開發事業은 '96년부터 2000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당연히 韓國教育開發院의 설립목적에 비추어 同開發院 自體研究事業에 포함시켜 추진하는 등 계획성있는 예산 집행으로 財源의 效率性을 제고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나라의 英才教育은 財政的 支援의 부족, 制度的 裝置의 전무, 英才判別道具의 미비, 非合理的 判別 등으로 英才의 早期 發掘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인 바 이에 대한 뒷받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國立特殊專門大學 設立事業입니다.

國立特殊專門大學設立 支援豫算은 '97년도 新規事業豫算으로 障礙人들의 高等教育 機會를 확대하여 專門技術을 취득케 함으로써 社會適應力을 향상시켜 이들의 삶의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土地買入費 23억6,600만원과 基本調査設計費 1억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는 學校施設 決定등 일련의 法的 節次를 거치는데 따르는 所要期間을 충분히 고려함이 없이 우선적으로 豫算確保에만 치중한 결과라고 보여지는 바 당초 豫算編成時부터 보다 치밀한 事業計劃을 수립하여 特殊教育環境과 特殊教育對象者의 다양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등 特殊教育支援에 더욱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大學등의 施設 및 實驗·實習機資材 擴充支援事業입니다.

國立工高 및 國立大 施設, 實驗·實習機資材 擴充支援豫算은 다른 사업의 예산보다 매년 事故移越 및 不用額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國立工高施設·設備擴充豫算의 경우 150억8,800만원의 예산 가운데 14억1,700만원이 移越되고 國立大學 施設擴充豫算은 3,317억5,400만원중 565억2,900만원, 實驗·實習機資材 擴充豫算은 1,247억1,500만원중 120억500만원이 移越되고 127억800만원이 不用되었습니다.

事故移越의 구체적인 발생사유를 살펴보면 施設事業費는 절대공사기간부족, 機資材 擴充費는 납품기간부족, 設計費의 경우는 설계조제기간 부족 등이 사유인 바 원래 構造的으로 매년 事故移越 및 不用額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豫算配定이 연초에 이루어진 龜尾電子工業高等學校의 施設費 移越內譯을 살펴보면, 전자기계과를 6학급에서 12학급으로 증설하는 예산을 '97년1월3일 배정받아 1월19일 設計用役 의뢰, 5월16일 납품, 5월17일부터 6월15일까지 設計書 內譯을 검토하고 6월16일 調達廳에 계약요청, 7월16일 계약하여 7월21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設計工程上 工事期間이 250일로 工事期間이 절대 부족하여 事故移越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設計費와 施設費 豫算을 함께 확보하여 施設事業을 집행하면 절대공사기간 부족으로 施設費는 事故移越할 수밖에 없으며 竣工時期도 늦어져 학생수용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豫算配定이 늦게 이루어진 事例를 살펴보면 江原大 共同實驗實習館에서 사용할 機資材 購入豫算 10억원의 예산배정이 '97년11월21일 이루어져 12월5일 입찰공고, 12월17일 입찰등록 마감, 12월19일 換率引上으로 유찰되어 12월31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기 때문에 納品期間 不足으로 이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國立大學 共同實驗實習館 機資材 購入豫算은 隨時配定事業豫算이라 豫算의 早期配定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로 인하여 예산배정이 늦어져 60억원 가운데 44억3,500만원이 이월된 것입니다.

이러한 事故移越額 및 그 比率는 매년 增加趨勢를 보이고 있는바, 그 내역에서 보듯이 豫算編成 및 執行의 構造的인 問題點에서 기인하는바, 향후 施設擴充事業은 新規事業의 경우는 設計費와 施設費를 연차적으로 반영하여 시설비의 事故移越을 사전에 예방하고, 實驗·實習機資材擴充事業의 경우는 예산을 조기에 배정하여 사고이월 및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地方大學 特性化支援事業입니다.

地方大學 特性化支援事業은 당초 '97年度 豫算에는 計上되지 않았던 사업으로써, 大學自敎努力支援豫算중 200억원을 전용하여 國際專門人力養成分野에 36억원, 工學分野에 72억원, 基礎科學分野에 27억원, 자유응모분야중 人文部門에 21억1,600만원, 其他部分에 23억8,400만원, 合計 180억원을 28개 國·公·私立大學에 지원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96년도에 시행된 國際專門人力養成 特性化大學 9개교가 모두 서울에 소재한 대학이 선정된 점에서 地方大學에서도 國際專門人力養成 등 特性化事業을 시행할 것을 목적으로 '97년도에 산이 확정된 이후에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되었습니다.

事業推進體系 및 支援方式을 말씀드리면 1차년도인 '97년도에는 大學別 事業計劃書를 심사하여 支援大學을 선정하고 '98년이후는 前年度 事業推進 實績評價 결과에 따라 國庫支援金이상 규모의 對應投資를 조건으로 '97년부터 2001년도까지 5개년 差等支援하는 것입니다.

教育部豫算中 大學支援豫算은 總額事業 豫算으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轉用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나 기존의 大學自敎努力支援事業費가 축소되었음은 물론 새로운 사업의 妥當性을 충분히 검토하고 시행하였는지는 기존의 여러 大學教育支援 事業들과 관련하여 檢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既存事業의 目的과 관련하여 同事業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教育改革推進 優秀大學 財政支援事業의 目的은 大學別 多樣化, 特性化를 유도하여 개혁 우수사례의 全國擴散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國際專門人力養成 特性化支援事業은 世界化·開放化時代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國際關係 專門人力을 양성하겠다는 것입니다.

한편 地方大學特性化支援事業 또한 國際專門人力養成 등 地方大學 特性化를 目的으로 하고 있어 事業目的으로 본다면 앞의 2개사업과 중첩되어 보이며, 1차년도에는 28개 대학을 선정하고, 2차년도 '98년도에는 '97년도 實績評價가 끝나지 않아 몇 개 대학을 지원하려는지는 미정이지만 3차년도인 '99년에는 10여개 대학으로 지원을 축소하려고 하고 있는바, 처음부터 大學選定 등 事業計劃이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5년간 繼續事業이므로 事業豫算 確保가 어려워 支援大學의 規模를 줄이는지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地方大學特性化事業中 工學分野에 선정된 8개대학의 지원도 기존의 工科大學 重點支援事業이 사업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새로운 8개대학을 선정한 것인지에 대하여도 教育部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地方大學特性化事業의 大學別 支援內譯은 《表-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教育情報化 事業입니다.

教育情報化事業은 교육부, 16개 市·道教育廳, 멀티미디어教育支援센터, 尖端學術情報센터, 서울대학교, 韓國教育開發院 등에서 개별적으로 분산 추진되고 있는바, '97년도는 '96년대비 360%인 478억원이 증가된 610억4,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545억8,8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먼저, 멀티미디어교육을 통하여 學校教育을 보완하고 社會教育을 확충함으로써 열린教育社會·平生學習社會 구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자 설립된 「멀티미디어교육지원센터」의 '97년 豫算執行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當初豫算은 119억3,700만원이었으나 '97년3월12일 설립 당시 韓國教育開發院에서 전입된 직원 14명의 人件費 및 經常運營費 3억9,800만원을 轉用받아 豫算現額은 123억3,500만원입니다.

구체적인 豫算執行內譯을 살펴보면, 政府出捐金 123억3,500만원과 利子收入 등 自體收入 7억7,300만원 및 受託事業收入 4억원을 합한 135억800만원의 歲入豫算 가운데 事業費로 83억600만원을 책정하여 이 가운데 47억2,200만원만 집행하고 電子教科書 開發등을 위한 사이버에듀케이션구현 예산과 에듀넷운영비 등의 執行殘額 35억8,400만원은 '98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둘째, 學術情報의 國家的流通 시스템研究開發등을 위하여 설립된 「尖端學術情報센터」運營支援을 위한 36억100만원의 出捐金도 그 細部執行內譯을 살펴보면, 동 센터가 '96년12월17일자로 發足됨에 따라 '96년예산 37억6,100만원 가운데 36억8,500만원이 '97년도로 이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97년도에 36억100만원을 출연하여 利子收入 등 자체수입을 합한 81억1,000만원의 歲入豫算 가운데 40억6,000만원만 집행하고 執行殘額 가운데 17억6,900만원은 事故移越시키고 20억9,500만원은 '98년도로 이월하였는바, 사업비 가운데 專門學術情報 DB構築 및 서비스를 위한 사업의 경우는 豫算額 28억원 가운데 3,300만원만 執行한 실정입니다.

셋째, 教授의 研究活動, 學生의 學習活動에 관한 정보들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18개 國立大學의 電算網 구축 및 확장을 위한 大學教育情報化事業도 당초예산은 77억700만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7억600만원을 합쳐 豫算現額 84억1,300만원 가운데 35억900만원만 집행하고 執行殘額 48억5,100만원을 工事契約 遲延등으로 '98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넷째, 各級 教育機關에서 국내·외 멀티미디어 교육·연구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情報通信基盤 구축을 하기 위한 教育電算網 構築事業도 예산현액 29억3,800만원 가운데 21억7,900만원은 국내·외 專用回線使用料로 지급하고 실제 電算網 構築裝備 導入을 위한 사업비 예산은 豫算現額 6억6,000만원 가운데 1억2,500만원만 집행하고 5억2,700만원은 裝備購買 遲延으로 '98년도로 移越하였고 다섯째, 教育行政業務能率向上을 위한 行政業務電算開發事業과 教育統計資料의 수집·정리 및 분석·검색이 가능한 教育統計情報 DB시스템 구축을 위한 教育行政情報化事業도 예산현액 34억1,800만원 가운데 24억3,500만원만 집행하고 집행잔액 9억8,300만원은 不用處理하였는바, 執行細部內譯을 살펴보면, 行政業務電算開發事業은 학교종합관리 시스템 개발등을 위한 研究開發費로 31억6,800만원을 확보하였다가 이 중 10억5,200만원은 韓國教育開發院 職員 退職積立金 不足財源 및 教育專門職 公採試驗 經費不足財源으로 전용하여 활용하고 나머지 21억1,600만원 가운데 13억5,200만원만 집행하여 執行殘額 7억6,400만원은 不用處理되었습니다.

따라서, 行政業務電算開發費로 확보한 예산 31억6,800만원 가운데 13억5,200만원만 해당 사업을 위하여 집행되었으며, 教育行政情報化事業도 교육통계 DB시스템 개발을 위한 4억원을 당초에는 연구개발비로 예산을 확보하였다가 연도중에 3억5,000만원을 轉用하여 韓國教育開發院에 出捐하고, 執行殘額 5,000만원은 不用處理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教育情報化事業과 관련된 豫算執行實績을 살펴보면, 教育情報化事業은 關聯組織간의 有機的인 連繫性不足, 政策企劃機能과 執行機能의 혼재에 따른 業務推進의 非效率性, 教育情報化 推進組織의 分散에 따른 豫算 및 行政力의 낭비 가능성이 보이는바, 教育정보화사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추진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在外同胞教育支援事業입니다.

在外同胞에 대한 教育機會 확대 및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在外同胞教育豫算은 예산현액 318억7,300만원이 편성되어 192억7,800만원이 집행되고 125억9,5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豫算不用事由를 말씀드리면, 在外韓國學教 校舍新築施設支援費 23억9,900만원과 日本 在外民族教育館 設置事業費 100억원이 현지에서 對應資金이 모금되지 않아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在外韓國學校 支援豫算은 在外同胞 및 一時滯留



民子女에게 초·중·고등학교의 정규학교 교육 실시를 위하여 現地同胞 및 일시체류민의 참여에 의한 現地募金에 상응한 지원을 하는 것으로 韓國學校設立 支援豫算은 '98년 예산에 16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9월 현재 현지 모금이 부진하여 금년도 不用이 예상되나, 재외한국학교가 사립학교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學校新築費를 전액 보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在外韓國學校의 設立은 對應資金 조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학교설립이 불가능하므로 예산에 新築支援費를 미리 계상하여 현지에서 대응자금 모집이 부진하면 不用處理할 것이 아니라, 學校新設豫算支援 대신에 建物등을 임대하여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運營費 및 敎員등을 신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여 海外進出 國民의 子女教育問題를 우선 해결하고, 現地教育需要가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현지에서 募金이 완료되면 신축시설비등을 지원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예산 집행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東京在外民族教育館 設立事業豫算도 '97, '98 2년간 연속하여 각각 100억원씩 계상되어 왔지만 현지 對應資金募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귀중한 國家財源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在外民族教育館 設立도 現地教育需要와 對應資金募金 등 제반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出捐機關支援事業입니다.

'97년도에 韓國教育開發院, 韓國教育放送院, 韓國學術振興財團 및 韓國精神文化研究院 4개 出捐機關에 지원한 出捐豫算은 500억7,000만원으로 이 가운데 474억3,700만원을 집행하고 26억3,300만원은 예산절감 이유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韓國教育開發院은 '97년도에 人件費 61억3,100만원, 運營費 1억500만원, 研究事業費 10억5,200만원 등 72억8,800만원의 出捐金으로 21건의 基本研究事業 課題를 수행하였습니다.

한편 受託研究事業 가운데 教育部의 의 기관에서 수탁한 광명시교육발전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사업 1개 과제를 선정하여 研究用役費 집행내역을 살펴본 바 이 과제는 11개월에 걸쳐 연구책임자 1명과 5명의 공동연구자가 8,000만원의 연구용역비를 지급 받아 研究를 수행하였는 바 기간중에 研究責任者의 경우 이 연구사업 포함 5건의 연구용역을, 共同研究者 5명은 이 가운데 1명이 5건, 2명이 3건 다른 2명이 2건을 맡고 있었으며 이 연구용역을

위하여 海外出張 2회, 컴퓨터 購入 및 임시직 연구원이었던 자에게 프로그램개발 연구용역비 등을 집행하였는바 세부적인 豫算執行內譯은 표-4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97년도 教育部所管 室·局別 연구개발비의 집행실적을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은 55억9,600만원이었으나 14억6,500만원을 다른 용도로 轉用하고 豫算現額 41억3,100만원 가운데 28억4,300만원만 집행하고 12억6,8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하 地方教育財政交付金 및 特別會計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제3호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咸鍾漢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大體討論에 들어갈 순서입니다마는 간단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위원회 첫째 발언시간은 15분 이내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朴承國 委員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承國委員 朴承國 委員입니다.

우선 보고서 내용중에 먼저 잘 몰라서 묻고 질의하겠습니다.

歲入歲出決算報告書 4페이지 初·中等教育에 14조5,276억이 세출이 되었다는 그런 보고서입니까?

○教育部長官 李海瓚 예.

○朴承國委員 전체 17조원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14조라는 얘기이지요?

○教育部長官 李海瓚 예, '97년도에 집행된 예산입니다.

○朴承國委員 그래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우리 나라 私學이 요전에 어떤 자료를 보니까 거의 지금 國庫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율로 國庫에서 의존을 하기 시작해서 나간다고 하면 적어도 2000년 정도되면 아마 우리 나라 私學도 거의 국고에 의존할 것 아니냐? 또 사학을 하는 분들이 지금도 사학해 보아도 아무 재미가 없다 이것입니다.

일일이 教育部에서 관여를 하고 마치 公立學校처럼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해서 特性化라든가 自律化 이런 것도 없는데 내가 무엇때문에 이런 것을 해야 하는냐?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자본 투입 능력이 있어도 투입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양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니까 대략 中學校가 약 50%, 상당한 퍼센티지가 사학에 의존하고 있는데 지금 私立中學校 같은 경우에 약 80% 어떤 경우에는 100% 국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高等學校가 의존도가 30%, 40% 정도인데 이렇게 되었을 때 얼마 안가서 이 분들이 자꾸 투자를 안하니까 모자라면 자꾸 대주도록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14조5,000억이라는 돈이 1년에 들어가는 데 이것이 17조, 18조 갈수록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가뜩이나 우리 教育部 豫算이 줄어드는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근본적으로 지금부터는 私學을 놔주어야 될 시점이 아니냐? 또 中學校는 이미 지금 80%, 90% 올라갔으니까 말하자면 義務教育을 하니까 국가가 전부 떠 안아서 公立化를 한다든가 高等學校는 100% 놔준다든가 하는 이런 결론을 내려야 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 長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歲入 未收納額이 지금 4억2,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3억3,000만원이 '88년도부터 계속 未收納額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豫算會計法에서 10년이면 무슨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마는 10년동안 얼마나 노력을 안했길래 '88년도부터 세입분야에 미수가 되어 있는데 3억3,000이 그대로 계속 오고 있는가? 그 노력을 얼마나 했는가 하는 점이 의심스러워서 한번 물어봅니다.

세번째는 移越額이 1,004억입니다. 예산현액 대비해서 0.8%인데 이것도 해마다 자꾸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네번째는 不用額이 865억인데 예산현액 대비 0.7%입니다. 96년도가 0.3% 또 그 전에는 0.2%인데 그것이 아주 크게 증가 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왜 이런가 말씀해 주시고 다섯번째 國際專門人力養成 特性化事業을 하는데 서울소재 9個 大學만 했습니다. 200억, 200억 해서 400억 투자했는데 그러면 지방에는 국제전문인력이 필요없느냐? 어떻게 해서 서울소재 대학만 이렇게 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咸鍾漢 朴承國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盧武鉉 委員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盧武鉉委員 盧武鉉 委員입니다.

따로 특별히 질의드리려고는 하지 않고 조금 전

에 專門委員께서 決算 檢討報告書를 꼭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決算 檢討報告書 意見은 여기서 처음 나오고 교육부도 지금 처음 접수하게 되는 것인가요? 미리 가 있습니까?

○專門委員 尙元鍾 실무자들한테는 가 있습니다.

○盧武鉉委員 실무자들한테 갔는데 그것은 사실상 가 있는 것이고 공식적으로는 처음 여기서 지적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마다 보통 이런 절차를 거치는데 專門委員이 檢討報告를 해서 문제로 지적해서 교육부의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지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교육부에서 답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위원회에 제출을 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까?

○專門委員 尙元鍾 그렇지는 않습니다.

○盧武鉉委員 그렇지는 않았습니까? 그냥 이것 보고 위원이 맞다 싶은 것 있으면 골라서 질의하는데 썩어 이런 뜻으로 만들어 주신 것인가요?

○專門委員 尙元鍾 예.

○盧武鉉委員 그런데 하나 하나 다 맞다 싶으면 어떻게 하지요? 개괄적으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다 설명하시기는 어려울테고 중요한 부분 보고를 들어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네요.

다 하라하면 너무 많을 것 같고 그렇다고 제가 이것 하나하나 짚자고 이것 뒤적거리면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고…… 이것 중에서 중요하다 싶은 것 저도 한번 찾아볼 테니까 몇 가지 쟁점이 될만한 부분에 관해서 답변들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李源馥委員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잠깐 하겠습니다.

○委員長 咸鍾漢 말씀하세요.

○李源馥委員 盧武鉉 委員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차피 專門委員 檢討報告書를 보신 위원님들도 계시테고 저는 개인적으로 못보았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그것을 토대로 해서 많은 질의가 있을 것으로 전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다른 분들이 질의를 충분히 다 한 다음에 답변 나올 적에는 당연히 教育部에서는 그것을 참고해서 가지고 또 위원 개인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이미 專門委員 檢討報告書에서 반영되어 있는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참작해서 답변을 충분히 해주시고 혹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

에 대해서 보충질의할 때 챙겨주시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朴承國委員 위원장님, 제가 아까 질의하다가 하나가 빠졌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咸鍾漢 예, 말씀하세요.

○朴承國委員 初·中等教育情報化 基盤構築事業에 멀티미디어실이 있습니다. '97년도까지 81실에 보급을 41.3% 했다 했는데 '98년도의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제가 초등학교에 한번 가 보았습니다. 현장을 가 보니까 먼지가 뽀얗게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할 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새로운 것을 갖다 놓으면 만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쉬운 것은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교사로 하여금 시켜놓고 기계를 설치하면 死藏 되지도 않을 것이고 또 컴퓨터라는 것이 날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옮겨 다룰 정도가 되면 그때가서 또 새로운 것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豫算을 쓰는데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겠느냐? 또 그런 것을 갖다 놓고 자꾸 쓰라고 현장에 대고 指導監督을 해야지 자율적으로 쓰라고 하면 안 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선생님 보고 물었더니 '우리 학교 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도 똑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이런 문제도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咸鍾漢 盧武鉉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보고서에서 전문위원께서 문제로 제기하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서 반론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교육부에서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꼭 나중에 짚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金許男 委員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許男委員 金許男 委員입니다.

장관님 한테 한번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中學校 義務教育이 어느 연도까지 달성될 수 있는지, 다음에 高等學校 義務教育도 어느 연도까지 달성할 수 있는지? 우리가 그 전부터 의무교육 이래가지고 많이 말이 나왔는데 그 전에는 10년이면 된다 했는데 10년이 지났습니다. 대개 어느 때까지 되는지, 先進國이라면 高等學校까지 다 義務教育인데 우리 나라에서는 이렇게 의무교육이 너무 늦지 않느냐? 어떤 방법으로든 이런 것을 자꾸 늘리자면 教育豫算이 다른 데 비해서 많이 충당되어

야 되는데 이것이 해마다 삭감되고 또 教育特別稅도 없앤다고 하니 참 이것이 막연하지 않느냐?

우리 역시 初·中·高等學校까지는 義務教育이 완전히 되어야 先進國家라고 어디 가서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래를 한번 백성들이 다 알 수 있게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專門委員이 報告했습니다. 예산을 쓰다가 남은 돈 移越하는 것이 너무 여러 건입니다. 쓰다가 남아서 不用額이 참 많습니다. 지금 보고한 것에 보면 대부분이 移越과 不用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맨 처음에 사업을 설정할 때에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충 國家豫算이니까 받아놓고 보자 어쨌든 확보해 놓고 보자 이것입니다. 그런데 國家豫算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정말 정확하게 해서 정확하게 써서 정확하게 결산이 나와야지 이것을 그저 덮어놓고 받아놓고 不用이니 移越이니 한다는 것은 이것을 왜 과거 정부가 이렇게 했으니까 새 정부가 와서는 이런 일이 절대 없겠는지, 그냥 계속해서 前 政府와 같이 지속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한 것이 왜 잘못되었다는 것과 후에 다시 明年에 豫算을 짤 적에 이렇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大學入試를 '87년도에 大學入學考査 銓衡經費를 3억3,000만원을 한국과학기술원에 냈습니다. 10억이 잔액이 있습니다. 이것이 회수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10년이 지나도 회수 안 됐습니다. 이것 언제까지 회수되겠는지 그것을 확실히 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교과용 도서편찬, 김정 이런 것이 돈이 늘 모자라서 이것을 못했는데 36억이나 했는데 실재는 30%나 불용액이 됐습니다. 이러면 뭘 이것이 교과용 도서라든지 편찬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했겠느냐 돈이 모자라서 찢절매야 될텐데 돈이 자꾸 남는다는 것은 정말 일하는 척하고 안 한 것 아니겠는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咸鍾漢 金許男 委員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李相賢 委員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賢委員 한나라당 李相賢 委員입니다.

먼저 英才教育事業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7년도 英才教育 強化를 위한 예산을 보면 2억

5,0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이중 1억8,000만원이 영재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출연금으로 되어 있고 또 7,000만원이 英才兒判別檢査 道具開發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집행과정을 보면 영재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비 1억8,000만원이 한국교육개발원영재교육연구팀에 출연되어서 연구개발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英才教育支援센터 設置運營費로 책정이 되었는데 왜 이것이 제대로 집행이 안되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英才教育研究開發費는 韓國教育開發院의 자체 연구사업비로 충당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현재 우리 나라 英才教育은 96년부터 2000년까지 5개년 계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추진현황이 어떤지?

뭔가 英才教育支援센터 設置運營費 이런 것도 다른 데로 전용이 되고 하는 것을 보면 사업의 당초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推進現況을 말씀해 주시고 英才教育이라는 것이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겠는데 외국의 모범사례로 아시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선진 외국에서 영재교육을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로 在外同胞 教育支援事業과 관련하여 재외동포에 대한 교육예산이 예산현액 318억7,000만원이 편성되어서 이중에 192억7,000만원이 집행이 되고 125억9,500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 不用事由가 일본이라든지 필리핀 등지에서 교사신축시설 지원비 또 민족교육관 설치사업비 이런 것이 현지에서 대응자금이 모금되지 않아서 불용처리되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 이러한 在外同胞 教育支援事業 豫算編成을 하는데 있어서 그 편성경위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教育部에서 주도적으로 현지 教育需要를 파악을 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민들이 요청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획과 달리 집행이 안되는 것같은 이런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現地實情에 대해서 좀더 면밀하게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科學教育基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科學教育基金 '97년도의 運用을 보면 민간기여금이 10억원, 이자수입 8억1,449억원, 합계 18억1,449만원이 조성이 되어 가지고 사업비 등으로 4억1,117만원이 사용되고 순조성액은 14억33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科學教育基金은 '84년부터 '98년까지 15년간 500억원을 조성해서 이자수익금으로 기금목적사업에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 말 현재 순조성액은 122억8,5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당초 목표대로 '98년까지 500억원 모금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동 基金事業의 목표를 再調整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이 사업이 基金造成도 제대로 잘 안되었고 실제로 기금을 운용하는 사업내용을 볼 때도 그렇게 바람직한 기대했었던 바대로 잘 운용이 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豫算編成에서 기금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한데 근본적으로 科學教育 基金事業을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고 좀더 효과적인 사업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장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咸鍾漢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薛勳委員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薛勳委員 薛勳委員입니다.

收入代替經費 이것이 해마다 초과수입이 됩니다. 제가 작년도도 지적을 했고 재작년도도 지적을 했는데 지적하니까 나아지는 것 같은데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97년 決算基準으로 해가지고 수입대체경비가 되는 수능시험 그리고 국립학교입학시험 수험료 수입에서 歲入豫算額이 165억인데 실수납액이 274억입니다. 108억 정도 초과수납되었는데 초과율이 65.6%나 됩니다. 이렇게 예산을 잘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 살펴보면 수능시험예산대비 초과비율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14.5%, 금액으로는 13억원 거의 실제치에 접근했습니다.

'95년도에 75%나 되었고 96년도에는 56%나 낮아지고 있어서 제대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결산할때 지적하니까 시정조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잘 하셨다고는 봅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入試經費 그리고 論文審査費

이것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97년 決算額을 보면 세입예산액이 72억인데 실수납액이 168억, 95억이 초과수납 되었습니다. 초과율이 131%나 됩니다. 물론 입시지원이 사립대학도 그렇지만 국립대학같은 경우에 복수지원을 하니까 예상하기 힘들었다고 얘기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심합니다. 入試經費하고 論文審査料 추가수납률이 '94년은 166%, '95년에 140%, 96년에 151%, '97년에 131% 전혀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복수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예측하느냐?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됩니다. 修能試驗을 우리가 조정을 했듯이 入試經費에 들어가는 비용들도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학부모들의 입시경비 과다지출 이 부분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해마다 지적하는데 修能試驗 經費를 맞추어내듯이 大入經費, 論文審査料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파악을 해가지고 학부모들의 경비부담을 낮추어 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방법을 장관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移越額하고 不用額이 증가되고 있는데 교육부 지난 3년간 결산현황을 비교해 보면 '97년 이월액하고 불용액의 비율이 전년도 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移越額을 보면 一般會計의 경우가 '95년도에 약 470억원이고, 이것은 일반회계의 경우입니다. 이것은 예산대비 0.5%밖에 안되지만 470억원이고 '96년에는 약 792억, 이것은 예산대비 비율 0.7%로 늘어났습니다. 97년에는 1,004억입니다. 이것은 대비율이 0.8%로 또 늘어났습니다.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國有財産管理特別會計의 경우도 '96년에는 118억, 액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예산대비 비율이 32.7%나 됩니다. 또 '97년에는 157억, 이것도 36%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國有財産管理特別會計의 경우에 일반회계에 비해서 액수는 적습니다. 그러나 비율이 훨씬 큼니다. 이런 移越額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대해서 이것은 결국 예산편성이 잘못되었고 집행이 체계적이지 못하다 이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事例를 들어보겠습니다.

· 大田産業大學校 도서관 신축통신공사 '97년1월3일에 예산배정되었는데 설계가 9월30일에 완료되었습니다. 契約締結은 회계연도 다 끝나가는 12월

22일에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동절기에 공사중지되니까 못하고 또 회계연도 마감에 따라 가지고 이월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이런 것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사연이 있겠습니까마는 왜 이렇게 되었는지 장관께서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不用額도 크게 문제가 됩니다. 一般會計의 경우 예산대비 불용액이 '94년도, '95년에 0.1%이던 것이 '96년에는 0.3%가 됩니다. 그리고 '97년에는 0.7%가 됩니다. 계속 늘어납니다. 예산을 왜 짊어지니까? 이것은 제대로 맞추어서 쓰기 위해서 짜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불용, 이월 이런 비용들이 점점 줄어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豫算編成할 때 잘못했다는 것이고 집행도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산할 필요도 없어진다는 얘기까지 논리적으로 가능해 집니다. 이것 잘못되어 있습니다. 시정합시다.

移越額 發生要因中에서 事例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국립특수학교 신설사업, 특수교육 기회를 확대시켜 주어야 되는데 물론 특수교육이라면 장애아들 교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급히 해주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95년의 약 24억 예산중에서 22억 3,000만원, 95년의 경우입니다. 93%를 이월했습니다.

또 '96년도에도 58억 예산중에서 11억을 이월시켰습니다. 19% 정도됩니다. 97년도에도 약 155억, 26.8%, 41억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것이 장애아들을 위해서 교육하는 特殊教育이 이렇게 이월되고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장애아들에게 혜택이 안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障礙兒들 特殊教育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말 그대로 쥐꼬리만합니다. 이것조차 이월시키고 있으니 결국은 特殊教育에 대한 홀대 내지는 신경 안쓴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은 시급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장관님 견해는 어떤지 얘기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國際專門人力養成 特性化 事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에 9개대학 國際大學院에 대한 교육부가 평가를 했는데 그 결과 대부분의 대학원이 전임교수가 확보되어 있는 것이 부족하고 연구비 집행도 비효율적이고 또 長期的 財政確保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이런 문제점들이 드러나 있어 가지고 이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 사업목적이 제

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심각한 의문에 부닥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豫算執行 實績을 보면 96년, '97년까지 2년간 9개대학에 國庫支援된 것이 400억인데 이중에 '98년 현재까지 70.7%밖에 집행 안되었습니다. 283억만 집행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서울대학은 40%밖에 집행 못했습니다. 연세대학도 46.2%, 9개대학중에서 4개대학이 절반도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결국 계획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칭펀드 大學別로 대응자금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연세대학만이 100% 확보했습니다. 나머지 대학은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국외대는 계획대비 49%만 대응자금 확보했습니다. 경희대 50% 조금 넘고 대부분 다 이런 식입니다.

결국 이렇다 보니 豫算浪費가 많은 문제사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낭비 많은 전형적인 사업이 경부고속철도사업 그리고 인천신공항사업 이것 다 문제사업들 아닙니까? 내가 알기로는 教育部分에서 國際專門人力養成 特性化事業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식입니다. 이것 앞으로 계속해야 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과감하게 중도로 마무리 지어야 되는 것인지 심사숙고해야 할 상황에 까지 왔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을 여기에서 그만 두자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필요성은 인정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졸속으로 시작되어 가지고 무계획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것입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효과는 전혀 없는 이런 식의 執行, 計劃 이것이 우리 教育部의 현재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해야 한다' 당위성이야 있지요. 國際專門人力 養成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나도 안하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미흡했고 管理體系도 허술하다 이런 지적입니다.

그래서 장관께서는 國際專門人力養成 特性化事業에 대해서 평가결과를 평가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고 향후 이 사업 목적달성을 위해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教育部의 입장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特殊教育事業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특수교육 지원사업이 교육부 전체 예산 들어가는 중에서 教育部本部 主要事業費의 0.4%밖에 안됩니다. 이것 보면 障礙兒教育에 들어가는 관심이 어느 정도다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투자를 하려면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特殊教育受惠率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몇 명이나 장애아들이 있는지, 장애아들이 어떻게 교육 받을 조건이 되어 있는지, 몇 명이나 받을 수 있는지 이것이 정확하게 만나와 있습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教育部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 출현율을 2.44%로 보고 있는데 국립특수교육원은 4.23%로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릅니다. 거의 배쯤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예산투자하는데 있어서도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자세한 數値까지 다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두 기관 사이의 特殊教育對象者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 추정이 서로 다르다는 것, 이렇게 되면 예산을 얼마 투자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방법도 달라집니다.

이것은 결국 特殊教育 政策樹立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대책이 필요합니다. 왜 이렇게 달라지는지 어느 각도로 보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教育部 對策이 있어야 되는데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咸鍾漢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源馥 委員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馥委員 앞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것을 짚고 넘어가셨기 때문에 가급적 중복되는 것들을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薛 勳 委員님께서 特殊教育問題등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첫번째로 이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特殊教育振興基金 204억중 42억이 이월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國立特殊專門大學의 경우에는 25억 전액이 불용처리되고 이런 등등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教育部에서 특별히 더 신경을 써주시고 각별하게 지원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어야 된다, 또 분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참고로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것인데 혹시 이 분

야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의 人事異動이 잦은 것은 아닌지, 그런 점이 있는지 답변해 봐 주시고 또 교육부내에서 교육부 관련 公務員들이 이러한 분야에 가령 자기가 보직을 받아서 간다 할 적에 士氣를 가지고 召命感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것인지, 이런 말은 우문에 해당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소신을 가지고 中長期的인 비전까지도 마련해 가면서 오랫동안 버텨가면서 하는 그러한 公務員들이 과연 있는지?

長官께서 가장 오래 그 분야에 대해서 專門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몇 년간 근무하고 있다 하는 것까지를 課長級 이상에서 사례를 얘기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분야에 대해서도 교육부 전체 체계속에서 어찌보면 대단히 결례되는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동안 死角的인 영역으로 취급받아온 그런 경향이 있지 않았겠느냐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 가 있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나는 다른 데 가고 싶다 그래서 이동되고 혹시 그러한 경향들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때문에 소신을 가지고 정말 이 분야에 대해서 정말 교육부 안에서 오랫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전세계에서 특수교육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자긍심을 가지고 세계에 내놓을 만한 그런 담당과장, 담당관이 되겠다'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답변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각 情報化事業에 대한 것도 이월액이라든가 불용액이 비교적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大學教育情報化事業에 84억중 48억이 이월되었고 教育電算網構築事業은 29억중 5억이 이월되었고 행정업무전산화개발은 27억중 8억이 불용되고 그랬습니다.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개발용 DBMS등 관련 소프트웨어보급정책의 경우에는 21억중 13억만 쓰고 8억 가까이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비교적 이런 행정전산화작업, 정보화사업에 대해서 이월·불용액들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비교적 여러 각도에서 여러 분야에서 이렇게 多發的으로 나오고 있는 것도 우리 교육부내에 역시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의 부족현상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긴 하는데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이런 작업들을 진행해 나감에 있어서 관련 전문가들을 우리가 확보하는데에서도 문제점이 있고 그분들이 구체적인 현장에 들어가서 사업들을 진

행할 때 각종 장애요소들이 있는 그런 요소들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비교적 이월이나 불용액처리가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지 그런 쪽에서 부담없이 답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學校生活記錄簿 電算處理事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전산처리라든가 入試制度를 관리하는데 있어서의 전산망확보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큰 차질없이 원만하게 다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보완대책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豫算이라고 하는 것을 물론 예산이 확정되면 100% 다 써야 되겠습니다마는 신이 아닌 사람이 일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100% 모든 것이, 또 경직되게 반드시 집행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융통성있게 문제들이 발생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전문대학교와 실업계고등학교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보면 不用額과 移越額들이 많은 현상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도 비교적 다른 여타의 다른 분야에 비해서 전문대학에 대해서 관심과 실업계고등학교에 대한 관심들이 조금 더 느슨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혹시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農漁村出身 大學生學資金融資 200억원중에 76억이 이월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농어촌출신 大學生學資金融資 200억중에 76억이면 비교적 프로테이지가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불적에 농어촌 학생들이 스스로 거부했다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도 76억씩이나 移越된 상태로 나타났다고 한다면 관심이 좀 덜 했던 것 아니냐? 집중적인 관심이 덜 했던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威鍾漢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鄭東泳 委員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東泳委員 짧게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97년도 세출결산내용을 보면서 이것을 巨視的 側面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작년도는 IMF 救濟金融, 國家危機가 도래한 해

이고 前任政府의 마지막 연도입니다. 정책을 숫자로 표시한 것이 예산이라고 한다면 작년도 前任政權의 마지막 연도의 教育豫算을 결산하면서 혹시 전임정부의, 그러니까 5년간 집행된 예산을 대충 따져보면 근 80조원 가까이를 이 교육분야에 투자했는데 과연 이 전임정부의 교육정책과 철학에 따라 투자된 이 80조의 예산집행내역이 과연 IMF사태를 초래하는데 어떤 일조를 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教育部長官으로서 이 '97년도결산서를 보면서 전임정부의 財源配分, 教育政策에 있어서 재원배분이 적정했다고 볼 수 있는지 장관의 평가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당시로서도 최선의 예산이었다고 생각했고 지금 돌아봐도 역시 '97년도 예산은 아주 최선으로 짜여졌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하나는 전문위원보고서에서 소소한 점들이 많이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教育委에 처음 온 입장에서 이 결산서를 보면서 숫자의 바다를 헤엄치는 듯한 느낌을 가지면서 방향감각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國家的 話頭가 國家競爭力인데 國家競爭力強化라는 차원에서 볼 때 이 '97년도 결산서가 반성해 보아야 할 포인트는 없는 것인지 어느 분야가 가장 소홀했고 優先順位에 어떤 문제점은 없었던 것인지 장관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 새 정부의 來年度 豫算이 제출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임정부와 새 정부가 정권담당자가 다른만큼 政策과 哲學이 다르고 거기에 표현된 예산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 決算書와 견주어서 새 정부가 이번에는 예산의 정책적인 중점과 비중이 어떻게 다른지 이것은 국민앞에 좀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咸鍾漢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日柱 委員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日柱委員 豫算의 當該會計年度에 있어서 收入과 支出의 실적으로서 예산과 집행의 일치여부, 예산집행의 적법성 등을 심사하는 것은 정부의 예산집행에 대한 사후감독과 정부의 국회예산심의권 侵害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決算審査를 통하여 정부가 예산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예산의 일반원칙과 예산회계법상의 諸

原則에 충실하도록 독려하고 촉구함으로써 예산이 가지고 있는 기능 즉 財源配分の 기능, 所得再配分の 기능, 經濟安定化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97회계년도에 교육부의 결산보고에 대해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교육부의 결산결과를 보면 매년 事故移越額과 不用額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95년도 예산현액대비 0.5% 이월이 발생했는데 '96년에는 0.7%, '97년에는 0.8%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不用額의 경우도 '95년 0.1%, '96년 0.3%에서, '97년은 0.7%로 급증했습니다. 이월과 불용액은 각 사업별로 그 사정이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부예산수립과 집행과정에 있어서 明確性의 原則 등 豫算의 諸原則을 지키고자 하는 熱意와 努力이 그만큼 부족했다는 反證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정부의 행정지도사항에 의한 불용액의 증가는 예산에 대한 國會의 審議·議決이 본질적으로 침해되고 있는 것으로 시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개선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회계법상 국가수입의 直接使用 禁止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행정편의상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收入對替經費制度입니다. '97년 교육부 一般會計의 국립학교입학금 세입예산현액은 76억414만원인데 실제수입액은 93억9,974만원으로 24%나 많습니다.

그리고 대학수능시험수수료과목은 세입예산현액이 165억7,217만원인데 수입액은 무려 66%가 많은 274억4,718만원입니다. 국립학교 입학자수와 대학수능시험 지원자수는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5% 誤差의 정확한 추산이 가능합니다.

연례적이고 고의적인 收入對替經費의 過小計上은 수입의 직접사용을 이례적으로 인정한 예산회계법의 취지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예산의 일반원칙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보다 정확한 推計와 收入計上을 위해서 성의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매년 이렇게 增額되고 差가 생기는 데는 관계하고 있는 擔當局에서 성의껏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예산상의 문제는 計數를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런 차질이 오는 것은 상당히 문



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長官께서는 정확하게 매년 늘어가는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威鍾漢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鄭喜卿 委員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喜卿委員 저는 가능한한 다른 위원님들이 언급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과거에 제가 발언했던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방향으로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막 鄭東泳 委員님께서 발언하셨는데 제가 그만 시간을 놓쳤습니다.

그런데 1997년도의 결산은 지금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기 전의 결산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96년도에 비해서도 제가 결산안을 검토를 해 본 결과 뭐라고 그럴까 상당히 뒤쳐지는, 한 예를 들면 불용액에다 이월액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것만 하더라도 전년도의 결산보다도 훨씬 뒤진 그런 결산을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더군다나 不用額이나 移越額內容을 보면 그러한 느낌은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관님을 향한 질의인데 결산을 보시면서 이 결산이 '99년도의 예산을 짜는 문제라든가 또 내년도에 있어서 '98년도의 決算에 있어서 어떤 교훈이라고 하면 어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있을 테니까 그 말씀을 해 주셨으면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情報化事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저희들이 모두가 다 강조하고 있는 바입니다마는 지금 1인 1PC 보급때문에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 가고 있습니다. 아까 어떤 委員님께서 먼지가 쌓였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불행이도 일선학교를 직접 가보지 못해서 몇 군데를 표집을 해서 질문을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敎員들 가운데는 PC를 쓸 수 없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것이 집계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敎員 1인당 授業時間數에 따르는 문제 또 敎무실에서의 常駐時間, 敎사의 책상의 크기, 敎사의 기타 업무량 등 또는 敎사의 情報化마인드라고 그럴까 그러한 것을 감안한다면 현재로서는 오히려 이러한 PC, 더군다나 PC기계라고 한다면 급속하게 退化를 합니다.

급속하게 아웃데이트가 되는데 이러한 것을 감안한다면 이것은 教育部가 展示豫算執行이 아니었던가 1,2년만 지나면 또 바꾸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은…… 작년도에 제가 이러한 발언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大學支援事業에 대한 문제인데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비용은 여기에 반영이 안되어 있을테니까 제가 문제를 삼지 않겠습니다마는 국제교육대학원이라는 것이 있었지요? 그것이 200억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이 지난 정권의 야심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굉장히 센세이셔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9개 학교에 이렇게 엄청난 돈이 들어 가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大韓民國 敎育全體를 보았을 때에 특히 우리 國民의 政府가 나가야 할 敎育의 方向과 敎育哲學의 方向으로 보았을 때 이것이 지금 어떠한 위치에 있어야 하는 것이며 과연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이고 있고, 이것이 다 새로 된 것이거든요. 새 사람 쓰고 새로 된 것인데 여기에 대한 평가가 얼마나 철저하게 되었느냐?

더군다나 IMF시대에서 계속해서 9개 大學에 나누어 놓으니까 안쓸 수 없다 이런 논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정말 이것이 우리 敎育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더군다나 앞으로 저는 현재 敎育부가 내놓은 大學院中心大學 이것도 개발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계에 있어서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평가가 과연 얼마나 철저하게 되어져 있는지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으면 資料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힘을 주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아마 세 번째 발언으로 알고 있습니다. 農漁村의 고등학교가 그 수명을 다해서 의미가 없어지니까 공립전문대학으로 전환·지원을 하겠다는 발상이 있어서 제가 그때도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을 한 일이 있습니다. 敎育부의 추산으로 보면 2003년이면 학생수도 모자란다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각급대학에 대해 敎育부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제는 無限競爭時代다.

정말 敎育의 質이 좋아지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어떤 학교가 初等學校로 시작했으면 초등학교로서의 생명을 다하면 그것으로 끝을 내주어야 됩니다. 그것은 정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학교는, 이것 똑같은 말은 제가 지

금 세번째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高等學校 없애고 그 자리에 專門大學 세우고 전문대학하다가 開放大學되고 개방대학이 産業大學되고 산업대학이 다시 4年制 大學으로 가더라 하는 것이 우리 나라의 교육입니다.

이래서는 안되리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일은 아니했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盧武鉉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咸鍾漢 예, 盧武鉉 委員님 토론하시겠어요?

○盧武鉉委員 예.

○委員長 咸鍾漢 예, 말씀하세요.

○盧武鉉委員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또 말씀드리려니 좀 미안합니다마는 아까 대개 많은 분들이 질의하셨는데 檢討報告書 범위에 있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檢討報告書를 이렇게 보니까 주로 이제 轉用, 移用 또 不用 뭐 移越, 事故移越 이런 문제를 참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決算의 目的上, 예산대로 집행되었느냐 또는 예산의 목표대로 집행되었느냐 하는 것을 다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法體系 自體가 그와 같은 豫算執行의 원칙을 세워서 그 원칙에, 법에 따라서, 어떤 규정에 따라서 하라는 거니까 그런 기준으로 決算에 관한 檢討報告書를 쓰고 또 그 기준에 따라 委員會에서도 평가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은, 원칙이라는 생각은 합니다마는 하나 이제 좀 의문이 드는 것은 演繹的으로 어떻게 정확한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마는 연역적으로 보아서 이 豫算決算에 관한 項目間 流用을 禁止하고 아주 엄격한 豫算決算制度를 갖는 것은 과거에 國家機能이 아주 소극적이고 단순하고 靜態的인 그런 시대에 세금이라든지 국가기능이 국민들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쪽으로, 그러니까 國家機能이 國民들의 權益을 침해하지 않는 쪽으로 규제하기 위한 그런 시대의 시스템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이 豫算決算制度를 運營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나 한편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뒤에 사회가 福祉國家라고 해서 능동적인 조성행정이라든지 그 밖에 많은 經濟의 主體로서 사업을 벌여나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한쪽 부분 公企業의 영역이라든

지 事業的 領域이 이미 예산의 범위에서 한편으로 벗어나가 버렸고 직접 行政機關이 하고 있는 것도 지금 보면 행정을 서비스행정 무슨 경영행정 이런 자꾸 事業的 方式으로 평가하려는 그런 경향이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대단히 豫算執行者들의, 계획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의 신속하고 機敏한 대응이 필요하고 融通性이 있는 대응이 필요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사 잘 해서 많이 아끼고 물건을 살 때도 꼭 뭐 산 것 사고 아껴 가지고 不用額이 많이 나오면 그것을 오히려 더 잘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제 그런 시대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 때문에 좀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이것 해보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국회에서 하룻만에 이래놓고 그것을 평가한다는 것은 이미 그것은 不可能한 것이고 대체로 이런 문제를 教育部에서 제기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企劃豫算委員會라든지 또는 財經部라든지 이런 國家 企劃部署에서 제기되고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단초를 이제 個別部署에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든지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決算 以後에 소위 말해서 事業的 豫算이라고 할지 성과를 중심으로 한 평가를 그냥 예산결산 이렇게 수치로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런 평가를 죽 해가지고 스스로 자체의 제한된 제도, 시스템 안에서나마 그래도 어떤 사업의 영역의 분야에 한해서 그 豫算이 豫算編成 때 우리가 생각했던 목표에 정확하게 맞추어졌는가?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그 예산이 집행되었는가 라는 것을 평가 분석해 보는 그런 시스템이 일개 부서 안에서라도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것이 전환되지 않고는 참 이것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 재작년 같은 때는 엄청난 經濟變動도 생기고 또 어떨 때 보면 가다가 중간에…… '98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97년에 짜준 예산으로 '98년 新政府의 教育哲學을 실현해야 된다는 이런 모순된 부분도 생길 수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政策目標에 있어서도 豫算과 政策目標가 좀 달라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래서 다른 부분을 전부 다 포괄할 수 없지만 아까 學校施設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해서는 좀 成果主義를 기본으로 한 평가 같은 것

을 한 번 도입해서 監査院 監査와는 또다른 教育部 自體監査 같은 것이 좀 자세하게 한 번 나와 가지고 이 다음에 국회에서는 그런 것을 가지고 한 번 볼 수 있는 그런 것은 안될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장황하게 지금 이런 것을 새로운 제안으로 드리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제안한다고 그것이 제도가 채택되는 것은 아닌데 참고 삼아 한 번 제안을 해보는 것으로 들어주시고요.

아까 제가 歲入歲出決算, 여기에 대한 檢討意見 이라든지 이런 것을 답변하고 듣는 과정에서 좀 하나의 참고가 될까 싶어서 제가 의견을 한 번 말씀을 드려 보았습니다. 어떤 기존의 豫算決算에 관한 기본 그 기준 가지고 평가한다는 것이 상당히 좀…… 신문에 턱 하니 不用額 얼마 이런 식으로 항상 평가해 버리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불용액이 많아야 좋은 것 아니냐? 불용액 많이 남기기 경쟁도 있을 수 있는 일 아니냐?

그래서 평가가 좀 치밀해져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번 의견을 제시해 봤습니다.

○委員長 咸鍾漢 감사합니다. 어찌 되었던 1,900억에 가까운 事故移越이라든가 不用額 處理問題는 우리 豫算編成上 문제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지난 해에 IMF寒波가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엄청난 액수가 事故移越, 不用額이 되었다 이런 사고이월, 불용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教育部의 다음 해 豫算編成에 아마 큰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1,900억을 다 썼으면 그것은 제로상태에서 그 다음 퍼센티지가 결정이 될텐데 1,900억이 다음해로 이월이 되면 우리가 教育部豫算이 1,900억이 늘어도 제로 포인트밖에 되지 않는 게 아닌가?

특히나 여기 사고이월에서 보면 絕對工期不足으로 넘어가는 돈이 너무 많다는 것, 이런 것은 우리 教育部 자체에서도 어떻게 좀 정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移越額으로 남길 꼭 이유가 있는가? 이것을 남기지 않을 수 있다면 그냥 繼續事業으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는지 그런 것도 좀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7次 教育課程 改正하고 圖書編纂 및 檢定事業에서도 보니까 11억2,000이라는 不用額이 있는데 우리 教育의 核이 教育課程 아니겠습니까?

教育課程을 개정하고 教科書를 편찬하는 그런 사업에 그렇지 않아도 그쪽 분야에서 얘기를 들으면 예산이 무척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 不用額이 근 20%씩이나 넘어간다는 것은 이

것은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지 이렇게 넘어가 가지고 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리고 우리 專門委員이 檢討報告한 내용 중에서 反論을 제기할 내용이 있으면 또 반론을 제기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모두 해주시기 바랍니다.

○薛 勳委員 위원장님, 저도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委員長 咸鍾漢 우리 薛 勳 委員, 補充討論입니까?

○薛 勳委員 예,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尙元鍾 專門委員이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서 꼭 이것 하나는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 다시 추가로 얘기하겠습니다.

檢討報告書 40쪽에 보면 중간쯤에 '97년도 교육부소관 실·국별 연구개발비의 집행실적'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研究開發費라는 것이 어떤 집단이든지 연구개발비가 제대로 이것이 쓰여져야 장래가 보장될 수 있다고 보는데 教育部라고 그래서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이 56억 정도 됐는데 이 중에서 14억6,000만원을 다른 용도로 전용했고 예산현액 41억3,000만원 중에서 28억만 집행하고 12억은 불용처리했습니다.

글쎄, 교육부라 해서 研究開發을 안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연구개발비에서 이렇게 이것은 한 마디로 봐서 거의 엉터리다 싶은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다른 것도 다 설명해야 되지만 특별히 40쪽에 대해서 이 부분은 말씀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咸鍾漢 감사합니다.

黃祐呂 委員으로부터 書面質疑書가 제출되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書面質疑書와 答辯書는 오늘 會議錄에 掲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政府側의 答辯準備를 위하여 한 30분 정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委員長 咸鍾漢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李海瓚 教育部長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教育部長官 李海瓚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셨는데 공통된 질의는 不用額 移越額의 增加趨勢와 理由에 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공통답변으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질의순서에 따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不用額 移越額에 대해서는 마지막 답변할 적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朴承國 委員님께서 초·중등 사립학교에 대한 국고지원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사학에 대한 자율권을 높여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실제로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교사들의 人件費 支援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98년도 올해에는 1조8,000억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사학재단에서 들어오는 예산이 전체예산의 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립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데 97%를 정부가 주는 보조금과 학생들의 수업료로 충당을 하고 私學財團에서는 주는 돈은 3%밖에 안 되는 실정입니다.

학교를 창립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학교는 재단이 운영해 나가는데 현재 우리 경제 여건 하에서는 완전히 자율성을 주게 되면, 국가가 補助金을 안 주고 자율성을 주게 되면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될텐데 그러면 登錄金이 더욱 인상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현재 앞으로 우리가 中學校 義務教育을 확대하고 사실 고등학교까지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실정이라서 이것을 등록금을 대폭 인상하게 될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보통교육에 큰 어려움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1조8,000억이나 되는 막대한 재정을 중·고등학교 교사들 급여를 위해서 보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中學校 義務教育을 지금 농촌지역 먼단위까지 하고 있고 점차 확대를 해나가야 되는데 이런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빠른 속도로 해나가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96년도에는 1조6,000억, '94년도에는 1조

4,000억 정도 했던 것이 올해에는 1조8,000억까지 지금 보조금 규모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86년도 예산에서 '87회계년도 大入學力考查 採點經費로 3억3,000만원이 과학기술원에 과다지급되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회수되지 않는 이유를 물으셨는데 당시에 OMR답안지 전산채점을 하느라고 예산을 과기원에 주었는데 후에 감사원에서 너무 과다한 費用을 받아갔다는 지적이 있어서 3억3,000만원을 교육부에 돌려주어야 하는 監査院의 지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려면 豫算廳이 科技院에 예산을 주어서 다음에 교육부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예산청 입장이 아시겠지만 어차피 정부 기관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예산청에서 안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저희 國立教育評價院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인데 정부 기관끼리의 거래로 박절하게 하지 못 하고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아직 매듭을 못 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민간이나 이런 쪽에서 회수할 것을 회수 못한 것은 아니고 정부 기관간의 거래에서 회수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不用額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國際專門人力 養成과 관련해서 왜 9개 서울소재 대학에만 주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97년에는 地方大學特性化事業에 따라서 지방대학에도 6개 대학에 36억을 배정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모든 예산이 20%가 줄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30억으로 절감된 예산을 가지고 6개 대학에 지원할 예정으로 豫算編成을 해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면 연간 200억을 가지고 9개 대학에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5년 동안 '97년부터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96년에 豫算編成을 할 적에 갑자기 청와대에서 말하자면 世界化事業의 일환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원래는 이런 사업을 하려면 시범적으로 한 두 개 대학을 해 보고 성과를 보아가고 필요한 대학에 확산을 시키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인데 그 당시 세계화라는 것이 당시 정부의 매우 중요한 國策事業들을 추진을 하면서 200억을 배정을 하면서 9개 대학이 사용을 하도록 원래 教育部가 요구하지 않은 예산을 編成해서 갑자기 시작이 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해당대학에서 미처 소화할 수 있는 준비가 채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97년부터 시행이 되어서 올해까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기도 하고 있고 사용능력 약화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96년2월 이후에 아무래도 世界化되어 가는 추세가 일반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현재 시점에서 종결한다는 것은 이미 시작한 대학들이..... 앞으로 받아놓은 학생도 있고, 어떤 점에서는 問題點을 최소화시키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1년까지 예정대로 시행을 해가면서 지금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최소화시키고 보완해 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國務總理室에서 지금 主要評價對象事業으로 잡고 있고 저희 교육부 내에서도 사업의 중요성과 여러 가지 지적된 문제점 때문에 管理對象事業으로 잡고서 문제점을 최소화시켜 나가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까지, 일단 올해까지 2년째 하면서 내년 豫算은 저희가 편성해서 제출했습니다. 2001년까지 예정대로 문제를 최소화시키면서 지원을 해나가고 이 사업을 더 發展시킬 것인지 終結할 것인지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서 2000년도에 가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日柱委員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5년 동안에 1,000억원을 지원한다는 것이 '96년도 12월부터 예산을 지원하기 시작했는데 그 뒤에 200억 준 중에서 使用內容은 90억원밖에 안 되고 110억원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 다음에 '97년에 200억 준 데서 80억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그냥 남아 있었고 그런데 222억원의 남은 돈을 9개 대학이 信託을 했더라구요. 신탁에 예치해 가지고 이자만 해도 20억이라는 이자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금년에 또 160억 지원했지요? 내년에 또 100억원 지원하겠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教育部가 각 대학에 대해서 사업계획대로 진행되는 상황을 수시로 監査하고 進行過程을 파악했다면 이런 막대한 예산을 계속 지원할 수가 없잖아요. 돈을 안 쓰고 大學이 신탁에다 돈을 예치해 가지고 이자수입을 20억이나 얻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教育環境이 京畿道하고 仁川이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인천 같은 데는 심지어 콘테

이너박스 교실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2,500명이나 된단 말이예요. 여름에 얼마나 더울 것이며 겨울에 얼만큼 춥겠습니까? 그런데 대학에다가 國際化니 世界化니 해가지고 돈을 주어 가지고 몇 백억씩 신탁에 예치되어 있다, 이것은 나는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李長官님 파악해 가지고 중단할 수 있는 것은 어느 때든지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대학도 서울에 있는 소위 名門大學 몇 군데만 집중적으로 지원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분야별로 工科大學은 어느 대학을 한다면, 이 장관 말씀이 맞아요. 어느 대학은 사회과학분야를 지원한다든지 어느 대학은 인문과학분야를 지원한다든지 세부적으로 나가면 어느 대학은 農科大學의 특수학과를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균형있게 世界化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똑 잘라가지고 했고 地方大學들은 최근에 와서 새로 지원하기 시작한 것이 30억이라고 그랬지요?

그러면 이 서울의 9개 대학은 비교적 資金動員能力이라든가 學校經營能力이 있는 대학에다가 1,000억이라는 돈을 5년 동안에 주면서 지방에는 아주 어려운 대학들이 수두룩한데 그런 쪽에는 적은 예산으로 서울에 集中的으로 지원한 데 대한 압박음이나 하겠다는 사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물론 제가 23일날 教育部 國監에 들어가서 지적을 하려고 했던 사안인데 이것이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제라도 파악해서 李長官께서 중단해야겠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중단하세요. 돈이 집행이 안 되어 가지고 쓰지를 못해 가지고 일반예금도 아니고 信託했다는 사실은 정기예금해서 利子收益 보자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國庫가 사장되어서 되겠어요? 이것 시정합시다.

○教育部長官 李海瓚 그래서 金委員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는 200억씩 5년을 지급할 예정으로 잡았는데 이것이 갑자기 준비없이 시작한 프로젝트이기도 하고 또 英語로 교육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서 한 것인데 그만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大學들도 있고 그래서 '98년 올해는 예산이 160억으로 줄었습니다. 내년 예산은 저희가 100억으로 또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예산을 줄여서 9개 대학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1,000억 예산까지는 집행이 안

되고 아마 700억이나 800억 정도로 예산이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5월에 이 문제를 저희 교육부하고 기획예산위원회가 特別管理事業으로 삼아가지고 공동으로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보니까 예상했던 대로 문제점이 실제로 노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되어서 내년 예산에 100억만 반영을 해서 규모를 축소시켜 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 자체는 앞으로 세계화의 큰 추세에 부응해서 계속 강화는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 프로젝트 자체가 존속하기 시작된 것이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현재 입장에서는 완전히 종결하는 것은 아니고 예정대로 끌고 가면서 내실을 기하는 쪽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 기획예산위원회와 저희 교육부의 현재까지의 판단인데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저희가 다시 한 번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金貞淑委員** 제가 조금 말씀드릴까요?

○**委員長 咸鍾漢** 말씀하십시오.

○**金貞淑委員** 國際大學院 問題는 저도 드릴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것이 초점이 아닌 것 같고 國監 때 저도 그 문제 말씀드리려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나라 교육정책이 그렇습니다. 시작한 지가 2·3년도 안 되어서 또 바꾸려고 하고 과거 정권에서 했던 것들을 아직 시험도 안 해본 단계이고 결과가 아직 나오기도 전에 없애버리고 하는 그런 정책의 연속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國際大學院 問題는 저는 우리 金日柱 委員님이 주장하시는 그런 시각하고 조금 다르게 저는 주장을 나중에 할 것인데요. 지금 우리가 돈이 없어서 당분간 줄여서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대학이 國際人力을 많이 양성하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지방의 여러 열악한 대학들도 많은데 어떻게 살아남지도 못할 대학들을 다 건진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대학에 있어서 質的인 우수성을 높이도록 도와 주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도와 주어야 되고 국제인력은 길러내야 됩니다.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학교 빌딩을 다 지은 학교들도 있어요. 그리고 國際人力을 양성할 교수들

을 다 뽑아서 해놓은 대학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장관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저도 큰 걱정은 않습니다마는 이것을 전면 스톱을 시킨다 이런 발상은 좋지 않다고 보고 계속해서 우리가……

○**委員長 咸鍾漢** 金貞淑 委員님! 지금 이 시간은 결산시간이니까 決算에 대한 얘기 하시고 그것은 감사때 얘기를 하세요. 지금은 빨리 그대로 진행합시다.

○**金日柱委員** 중단하자는 것이 아니라 돈이 신탁 예치되어 있으니까 문제지요. 단계적으로 지원하자는 거지요.

○**金貞淑委員** 결산에 관계되는 문제도 되니까, 얘기를 또 하시니까 나는 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저는 오늘 안해도 됩니다. 다음에 또 얘기할 수 있으니까……

○**朴範珍委員**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咸鍾漢** 말씀하십시오.

○**朴範珍委員** 지금 시간은 위원간의 토론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부에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인데 이상하게 위원간에 토론으로 지금 변질되어 가지고 회의진행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朴承國委員**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는 중에 이렇게 되었는데 제가 들으면서 아까 질의초점하고 다르기 때문에…… 아마 잘못 이해를 하신 모양인데요.

물론 장관님 그때 안 계셨습니다. 아마 그때 立案하신 분 여기 계실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제화를 서울의 대학만 해서 되겠느냐, 적어도 지방 대학이 많이 있는데 부산·대구·광주정도라도 하나씩 하고, 예를 들어서 6개를 서울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서울만 국제화 하느냐? 그러면 나머지 지방은 국제화 안 한다는 얘기냐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教育部長官 李海瓚**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國際專門人力 養成은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에서는 9개 대학을 선정했는데 教育部가 임의로 선정한 것이 아니고 당시에 선정위원회가 전문교수들로 구성이 되어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9개를 했는데 그것이 공교롭게도 首都圈에만 집중이 되었기 때문에 지방으로부터 문제 지적이 있어서 地方大學 特性化事業으로 해가지고 36억을 배정을 해서 지방의 6개

대학에 대해서도 國際專門人力 養成事業을 '98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한 해 늦게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99년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 있어서 저희 교육부에서는 국제전문인력 양성사업은 國家的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효율성은 높여 나가면서 서울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대학의 역량에 맞추어서 육성을 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不用額에 관해서는 나중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朴承國 委員께서 질의하신 학교 현장에서 情報器機들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서 지적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敎壇先進化事業과 情報化教育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서 교육부가 상당히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해 왔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委員님들이 그동안 많이 지적을 하신 것처럼 敎師들이 이것을 다룰 수 있는 연수와 프로그램개발이 함께 가면서 하드웨어가 같이 보급되어 나갔어야 되는데, 지난해까지의 점검을 제가 종합적으로 해보니까 하드웨어를 공급하는 쪽의 예산은 너무 많이 配定이 되어 있고 교사들 研修라든가 소프트웨어 개발쪽은 아주 약하다 보니까 어떤 데서는 잘 사용하는 학교도 있고 교사 연수가 잘 안되어 있는 데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먼지가 쌓일 정도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들어와서는 예산이 어렵기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과 研修의 양을 좀 더 內實을 기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물량공급쪽은 양을 조금 줄이고 교사들 연수와 소프트웨어 개발쪽에 더 역점을 두어서 균형을 맞추어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物量供給이 좀 적습니다마는 이것은 학생들이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제여건이 호전되는 대로 물량공급도 더 늘려나가고 그 동안에 敎師研修와 프로그램개발을 더 내실있게 하려는 방침입니다.

특히 학생들은 물량을 공급해 주면 또 스스로 배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재정이 따라가는 대로 물량을 공급해 주어야 되는데 올해의 여러 가지 어려움때문에 속도를 조정을 하고 있는 단계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敎師나 學生들이 꼭 학교에서 배우지 않더라도 學院이라든가 동료간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컴퓨터를 다루는 능력을 기를 수 있으면 그것을 대학에 들어갈 때 情報處理能力으로 認證하는 제도로 해서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길러나가는 방향은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金許男 委員께서 질의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中學校 義務敎育 달성이 언제쯤 되겠느냐는 말씀이셨는데 이것은 바로 예산조달하고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이 '97년도 예산보다 대폭 줄었고 또 내년 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줄고 있고 특히 地方敎育豫算이 대폭 줄고 있기 때문에 義務敎育을 더 확대해 나가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經濟가 다시 회복이 되어서 성장으로 전환이 되면 맞추어서 義務敎育을 확대할 수가 있을텐데 현재로서는 실시해 나가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표년도를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더 늦추어 잡아야 되는데 그것은 경기회복전망에 맞추어서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고, 저희가 올해 말까지 中期財政計劃을 세우게 됩니다. 저희 교육부도 세우고 국가 전체가 5個年 中期財政計劃을 세워서 거기서 單年度 중심의 재정계획이 아니고 5년을 바라보는 財政計劃을 세우게 될텐데 그 재정계획이 어느정도 세워지면 지금 金委員님께서 말씀해 주신 義務敎育 達成의 전망이 거기에서 추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敎育課程 改正이라든가 敎科用圖書編纂豫算이 그 중에서 30% 가까이가 不用處理된 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불용액 과다발생으로 인해서 당초 계획대로의 사업이 잘 되고 있는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국장이 상세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고, 제가 우선 기본적인 것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97년도에 豫算節減 運營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그 중에서 檢定圖書種數를 감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不用으로 11억 정도가 줄어든 것이 있고, 1種敎科用 圖書開發하는 것도 책수를 좀 줄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절감이 된 것도 있고, 이것은 단순히 불용이라기보다는 節減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節減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불용이 되었는데 이 種數를 편찬하는 과정에 관해서는 담당 실장이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억원 회수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李相賢 委員님께서 英才教育은 出捐金으로 운영되는데 KEDI 자체연구비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영재교육에 지원한 연구비가 제대로 사용되지 않지 않느냐라는 지적의 말씀을 해주셨고, 科學教育基金에 관련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영재교육에 막대한 研究費가 들어가는데 KEDI 자체연구비로는 이것을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KEDI라는 기관이 작은 기관이기 때문에 또 영재교육의 특수성 문제도 있고 해서 KEDI는 일반적인 교육정책 전반을 다루기 때문에 KEDI비용가지고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不用額 部分은 '97년도 下半期로 들어가면서 전반적으로 경기가 불황으로 들어가고 IMF가 오리라고 딱 전망은 안 했지만 경기가 불황기로 들어가면서 전반적으로 3/4분기부터 政府豫算을 감축운용하도록 지침이 주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불용이 감축예산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基金에 관련해서는 원래 基金 造成을 학생들이 아주 소액을 조성하기 시작했는데 경기가 나빠지면서 예상하지 않았던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원래 500억을 조성할 예정이었는데 政府에서 出捐하는 금액도 예산청에서 목표대로 출연을 해주지 못하고 있고, 또 기업에서 출연해 주기로 했던 것도 예정처럼 出捐이 되지 않고 있고, 그래가지고 현재로 보아서 목표연도까지 500억을 조성하기는 어렵다라고 전망이 됩니다.

특히 기업에서 출연해 주는 부분들이 기업들이 어려워지면서 지금 출연이 어려운 단계에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企業의 출연을 각별하게 요청을 해보았습니다마는 기업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출연이 어려운 것으로 회답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134억이 조성되어 있는데 科學教育은 앞으로 굉장히 강화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기금조성도 필요하고 과학교육에 대한 비중도 자꾸 높여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기금에만 의존할 수는 없고 저희 教育豫算에서 과학교육에 관해서는 각별하게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특히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入試에 묶여가지고 科學쪽에 관련된 특기를 발견해 줄 수

있는 교육들이 상당히 취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科學教育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더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기금을 폐지하게 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기존에 해 오던 사업에도 많이 차질이 생기고, 또 원래 이것을 시작할 때 어렵사리 學生들이 학급은 영비를 절약해서 모은 펀돈으로 좋은 뜻으로 시작했던 취지도 무색해지고 그래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해 나가는데 현재의 기금조성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李相賢委員 외국의 英才教育의 모범사례라고 그럴까,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教育部長官 李海瓚 우리 나라에서도 지금 위원님들이 英才教育에 대한 의원입법안을 제출하시기도 했고 저희 정부에서도 영재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外國에서는 영재교육학교를 별도로 운영하기 보다는 대학에 영재교육과정을 부설로 운영을 해서 학생들의 소질을 일찍 발견해 주어가지고 大學에 들어와서 영재로서의 기량을 빨리 발현시키는 쪽으로 운영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우리는 원래 科技高가 그런 차원에서 만들었던 것인데 科技高가 시·도별로 숫자가 많아지면서 그런 기능이 충분히 발현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조기에 과학교육을 해서 조기에 과학교육을 완료해가지고 발전해가야 되는데 일반 다른 좋은 大學 가기 위한 통로로 변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삼스럽게 英才教育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다시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방학때도 서울대학에서도 영재교육과정을 新設을 해보니까 영재교육을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이것을 통해서 다른 좋은 대학으로 가기 위한 點數를 따는 방향으로 부모와 학생들이 활용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자꾸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大學入試政策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영재교육에 대해서도 별도로 새로 접근하는 방법을 지금 시작을 했는데 아직은 委員님들한테 보고드릴 정도로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는 못합니다. 어느 정도 충분히 준비를 해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相賢委員 위원장님, 잠시 제가 決算과 관계는 없지만 자료제출하고 관련해서 한 말씀 해도 되겠



습니까?

○委員長 咸鍾漢 말씀하세요.

○李相賢委員 國政監査 資料提出 要件과 관련해서 장관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98년10월7일자로 교육부장관께 國政監査를 준비하기 위해서 教育部와 서울시교육청에, 法務部하고 서울지방검찰청에 한신학원 高額課外事件 關聯者 名單을 요청한 공문사본과 그 공문에 대한 해당기관으로부터 회신이 온 공문사본을 제출해 주도록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에서 '98년8월28일 그리고 9월7일에 발송한 공문에 대한 회신공문 및 부속서류중 일부만 본위원실에 도달이 되고 어제 추가로 자료를 요구했지만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내부결재는 마쳤는데 교육부 監査官室에 자료제출에 대해 상의를 했더니 현재 수사중인 자료를 제출해서는 안 된다고 제출을 보류하도록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아직까지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없는 자료도 아니고 内部決裁가 난 자료를 교육부에서 제출을 막는 것은 아주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教育部長官 李海瓚 오간 공문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수사중인 부모들의 명단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李相賢委員 부모들의 명단이 아니고 서울시교육청에서는 江南警察署에서 조사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찰서에서 조사한 내용을 교육청에 다 통보를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자료, 경찰서에서 조사한 내용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함께 받아보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教育部長官 李海瓚 그것은 저희가 더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저희 교육부도 檢察하고 資料要請때문에 이야기를 해보니까 기소되기 이전까지는 被疑事實 公開가 刑事訴訟法에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기소되기 이전의 자료는 저희한테도 제출하지 못하겠다 라는 것이 검찰의 답변이자 실질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기소와 동시에 그 자료를 받은 것이고 현재 수사중인 자료는 저희도 아직 제출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被疑事實公開때문에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이 강남경찰서하고 그 자료가 제출되었는지의

여부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아마 그것은 비공식적인 業務協調關係 次元의 것이 아니지 않았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李相賢委員 서울시교육청에서 법무부와 서울지방검찰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자기들이 자체조사를 하기 위해서 교사들의 명단을 파악하고 싶다 해가지고 教師名單을 보내달라고 그랬고 또 추가로 징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警察署 調查內容까지도 보내달라고 그렇게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시교육청에서 경찰서에서 조사한 내용하고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교사들 진술서를 받아가지고 비교표를 만들 정도였습니다.

아마 교육부에서도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제가 자료제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하고 資料提出과 관련해서 國會法을 찾아보았더니 國會에서의 證言·鑑定등에 관한法律에서는 국정감사를 위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군사 외교 대북관계의 國家機密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때가 아니면 자료제출을 해야 한다」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不法課外事件은 국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 이것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資料提出 要求를 했는데 이것을 교육부에서 막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教育部長官 李海瓚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公開의인 過程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해명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被疑事實 公開問題라든가 名譽毀損에 직접 관계되는 것이 아니면 국회든 국민들에게 그 명단을 공개해야 된다는 입장을 한결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이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國會提出을 거부할 수는 없는 사실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李相賢委員 서울시교육청이 교사들로부터 받은 陳述書 寫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조사한 것하고 관련교사를 서울시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하고 그 차이를 비교한 對照表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懲戒의 水位를

결정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아무튼 지금 현재 조사내용, 여기에는 관련된 교사가 중심이 되겠지만 아무래도 학생 몇 명에게 무슨 교습을 하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警察署의 調査內容을 분명히 지금 갖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왜 갖고 있는 자료를 제출을 안 합니까?

○**教育部長官 李海瓚** 저희가 제출을 못하게 하거나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도 자료제출을 접수되자마자 국회에도 보내 드렸고 言論에도 公開를 했던 것처럼 저희가 공식적으로 입수되는 자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는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국회에 제출을 안 한다는 것은 저로서도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李相賢委員** 교육청에서 교육부 감사관실의 관계자한테 상의를 한 모양입니다마는…….

○**教育部長官 李海瓚** 우리 감사관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시지요.

○**教育部監查官 具寬書** 감사관입니다.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李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서울시교육청이 강남경찰서에 협조요청을 해서 非公式的으로 받은 資料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는 교육부도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教育部長官 李海瓚** 그러니까 非公式的이니가 業務協調次元에서 강남경찰서로부터 서울시교육청이 받은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공식적으로 제출이 되면 위원님들에게 제출할 수 있을텐데 아마 業務協調次元에서 준 자료라면 대외적으로는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주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희가 그것은 좀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李相賢委員** 지금 여기에 관련교사 81명의 명단은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어떻게 조사가 되었는지 하는 것은 자세히 기술이 되어 있고 관련교사들이 서울시教育廳 自體調査에 진술한 내용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것에 비추어 보건대 서울시교육청에서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이 항간에 학부모와 관련해서 현 정권의 高位層의 子弟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과연 그래서 이

자료를 제출하기를 기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教育部長官 李海瓚**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그런 의혹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 의혹을 국민들에게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라도 자료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이 大統領의 方針이시고 저희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자료가 입수되는 대로 국회에 보고를 할 것입니다.

○**李相賢委員**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國會法에 軍事 外交 對北關係의 國家機密에 관한 것 말고는 무조건 자료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이 점을 참작을 하셔가지고 국정감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教育部長官 李海瓚** 예.

○**李源馥委員** 잠깐만요.

제가 한말씀만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國監 첫날 이 문제가 제기되면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우선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거나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사태와 高額課外波動의 事態는 전혀 다른 것이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教育部長官 李海瓚** 별개의 사안이지요.

○**李源馥委員** 그렇다면 교육부에서는 高額課外에 관련된 파동의 사태, 全貌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요. 거기에 대해서 보고서나 뭔가 있어야 되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教育部長官 李海瓚** 그러니까 교액과외가 지금 여러가지로 문제가 발생해서 오래 되었는데 그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이 있고 서울시교육청이 자기 地域의 管轄의 問題이기 때문에 조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檢察로부터는 起訴되는 자료를 저희가 받고 있고 수사중인 자료는 검찰이 저희한테 제출을 못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기소가 되면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교육청은 지금 調査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교육청의 조사가 아직 완료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자료를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李源馥委員** 장관님!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를 어느 시점에서 요청할 적에는 그 시점에 있어서의

教育部가 확보하고 있거나 내지는 교육부가 판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달라는 그 뜻입니다.

그러면 그 시점에 있어서 파악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教育部長官 李海瓚 현 시점에서 파악한 자료까지는 저희가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李源馥委員 현 시점에서 예를 들면 처음에 수貌는 어떻게 시작되었다, 사건의 발단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 高額課外事態라고 하는 것이 여러 형태의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그 여러 형태의 얼굴들에 대해서 냉철하게 교육부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드라이브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판단도 이미 내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教育部長官 李海瓚 예.

○李源馥委員 그러면 현 시점에서라도 위원들이 요구할 적에는 현 시점에서 교육부가 어느 어느 사태에 대해서 우리는 파악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내주어야 되지요, 왜 안 내줍니까?

현 시점에서 감사관은 전혀 파악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이야기를 해 보세요.

꼭 下部單位에서 무슨 보고를 받아야만 교육부가 그것에 대해서 내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아요.

○教育部長官 李海瓚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의 목록을 보면 高額課外者의 名單을 요구하신 자료가 대부분입니다.

○李源馥委員 그 의미가 여러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뭐냐하면 高額課外的 波動에 관련된 명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高額課外者名單’ 이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것 가운데에는 어떤 위원들은 예를 들어서 ‘고액과외를 한 사람들에 대한 명단을 달라’ 이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고액과외를 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완료되어야만 나올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薛 勳委員 위원장님! 議事進行發言 하겠습니까.

○李源馥委員 조금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명단들 가운데에는 교육부는, 거기에는 善意的 被害者도 있을 수 있고 진짜 金榮殷인가 하는 사람이 예를 들면 나는 누구를 타것

으로 해가지고 속된 말로 사기를 좀 쳐야 되겠다 하는 사기칠 대상자가 그 안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동 전체가 갖고 있는 명단이라고 하는 것과 搜查對象이 될 수 있는 사람의 名單, 또 그것이 수사대상이 된 뒤에도 정말 起訴가 되어지는 사람의 名單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냉철하게 ‘교육부가 현재 파악하고 있기로 지금 나와져 있는 이야기들은 이리이러한 사람들이 포켓에서 나왔다’ 그 다음에 ‘教育部는 누구누구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 ‘教師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조사하고 있었고……’ 그냥 경찰에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경찰에서 그동안 교육부가 경찰과 關係機關 合同調査를 통해서 보니까 경찰이 ‘어느어느 사람에 대해서 조사하더라’, 그리고 조사된 것에 대해서 피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안 하지만 일반적으로 無嫌疑處理된 사람들은 누구누구가 무혐의처리됐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시각각적으로 저는 교육부가 판단하고 있고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教育部長官 李海瓚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안이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일부는 검찰에 移牒이 되어서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서울시교육청에서 또 조사를 하고 있고 이 사안에 대해서 教育部가 直接調査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의 조사자료를 나중에 저희가 보고를 받을 것이고 검찰의 수사자료는 저희가 자료제출요청을 해놓았기 때문에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 사건에서 관련된 자료는 저희가 보고를 받거나 입수되는 대로 국회에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이고 사건에 관계되지 않은 一般的인 高額課外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搜查權이 없기 때문에 전반적인 高額課外的 問題點을 정리한 자료는 있지만 구체적인 사건에 관련된 별도의 자료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李源馥委員 일단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하십시오.

○委員長 咸鍾漢 잠깐 기다려주십시오.

정리보다도 議事日程에 관한 사항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 議決도 해야 되는데 議決定足數도 안되게 議事日程에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는 그 정도로 끝내고 국정감사가 23일부터입니다.

교육부감사 때 철저하게 이 문제는 논의하도록 하시고 오늘은 이 정도에서 끝내시고 장관의 답변을 듣도록 합시다.

○李源馥委員 저희 동료위원께서 자료와 관련되어서 말씀을 주셨고 아직 제출이 안 되었다고 하시기 때문에 제가 보충적으로 하는 것인데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23일날 어차피 教育部 本部監査를 할 때에 이 문제를 다루어줘야 하는데 그때까지 위원님들한테 판단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교육부에서 안 준다고 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중대한 職務遺棄이고 國監法에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경찰과 검찰에서 갖고 있는 명단을 달라는 개념만이 아니라 교육부가 현재까지 판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일단 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시고 또 그날 教育部 監査할 때에는 冒頭에 그 사태에 대해서 별도로 브리핑을 전제해 주시고 들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威鍾漢 장관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답변서라든가 자료요구하는 것은 원하시는 대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주십시오.

薛勳委員님! 말씀하십시오.

○薛勳委員 위원장님이 대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만 두겠습니다.

○教育部長官 李海瓚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相賢 委員님께서 在外同胞 教育施設事業 豫算編成의 節次와 豫算不用 등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강구하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재외동포들의 교육수요가 많은데 예산이 사실 불용이 되고 있어서 저희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프랑크푸르트에서는 지금 프랑크푸르트시가 토지를 제공했는데 僑民들의 現地募金이 안되어서 교육관을 짓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IMF救濟金融을 받고 있지만 세계적으로도 불황이어서 현지교민들의 현지모금이 잘 안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재정과 현지교민들의 모금이 합쳐져서 여러가지 豫算事業을 할 예정이었던 것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점들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교육부에서는 현지교민들이 모금을

해서 필요한 수요를 충족할 수만 있으면 언제든지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원래가 저희 재정으로만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 아니라 현지의 모금과 함께 매칭펀드(matching fund)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相賢委員 그런데 그 豫算案을 編成할 때 교육부에서 이니셔티브를 갖고 주도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현지교민들의 요청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

○教育部長官 李海瓚 요청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현지에서 '얼마를 우리가 모금을 할테니까 얼마를 도와주면 교육관을 짓겠다' 이렇게 하는데 얼마를 도와달라는 것은 저희가 확보를 해드리는데 현지에서 自體募金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데서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李相賢委員 그러면 現地實態를 좀더 직접 나가 본다든지 어떻게 해서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教育部長官 李海瓚 저희 교육관들이 나가 있기 때문에 현지의 실정을 잘 알고 있는데 현지에서도 원래는 모금이 되리라고 예산을 했는데 경기가 나빠지고 대개 교민들이 많이 있는 지역인데 현지교민들의 경제가 우리 경제가 잘 되어야 거기의 경제도 잘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제가 나빠지니까 현지교민들의 경제도 나빠져서 예상보다 모금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에 李源馥 委員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李源馥委員 저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教育部長官 李海瓚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鄭喜卿 委員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鄭喜卿委員 저도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教育部長官 李海瓚 예. 서면으로 충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薛勳 委員님께서 질의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國際專門人力養成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예산을 배정을 줄여가면서 내실을 기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앞에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앞으로도 豫算編成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원래 이런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시작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入試經費라든가 논문심사료라든가 이런 收入代替經費가 초과수납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는데 원래 이것이 豫算廳에서 처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 원래 금액보다 과소추계를 합니다. 원래는 다 하는 것이 정확한 것인데 다 하게 되면 예산이 증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좀 과소추계해도 豫算에 차질을 빚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산청이라든가 이쪽에서 增加率을 낮게 잡으면서 발생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수능시험 같은 것은 이것이 독립된 기관으로 국가출연기관에서 민간기관으로 독립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는 어차피 國家豫算에 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잡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過小推計에서 발생하는 문제라서 사실은 이것을 실제하고 가능하면 맞추어 나가도록 우리가 더 예산에 정확성을 기해야 되는데 그동안의 편성관행에서 오는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特殊教育 對象者의 차이인데 저희 교육부에서는 2.44%로 추정을 하고 국립특수교육원에서는 4.23%로 추정하는 이유는 기준의 차이도 있지만 또 하나는 신고하는 부모들의 태도에 차이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 같으면 申告를 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기 때문에 다 신고를 하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신고를 해도 政府에서 주는 惠澤이 많지 않고 또 자녀들이 障礙兒라고 하는 것을 감추려고 하는 속성도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 수요조사가 잘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 어려운 점입니다.

대체적으로 저희가 잡고 있는 것은 最小數字를 잡아서 반드시 교육을 해야 될 숫자를 잡고 있는 것이고 特殊教育院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대체적으로 연구를 통해서 나오는 추정치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숫자중에서 대부분이 신고라든가 확인이 안되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薛 勳委員 그러면 어디가 정확한 것입니까?

○教育部長官 李海瓚 제가 서울시에 있을 때 경험해 본 바로는 지금 教育部의 推定值 보다는 좀

높다고 보아야 됩니다. 서울시는 生保者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시 보조가 있어서 교육부에 신고하는 것 보다는 좀 높게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때 보니까 教育部가 추정한 것 보다 약간 높다는 것이 사실에 가까우라고 봅니다.

이론적으로 4.23%라고 보는 것은 샘플을 통해서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숫자라고 단정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薛 勳委員 長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부모들이 내 자식이 그런 장애를 입고 있다는 것을 숨기는 것이 우리 사회의 풍토인데 그렇다면 특수교육원에서 낸 것도 낮게 잡힌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教育部長官 李海瓚 낮게 잡은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教育對象이 되는 장애인하고 後天性, 말하자면 교통사고라든가 成人이 된 이후에 오는 장애인까지 포함해도 대체적으로 후천장애인까지 포함해도 5%를 크게 넘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教育對象이 되는 장애인을 4.23%까지 잡은 것은 결코 낮게 잡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貞淑委員 선진국에서 장애인을 셀 때 후천장애까지 포함하면 국민의 10%를 잡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취급하려고 하는 重症障礙는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5%로 들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숨기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薛 勳委員 그러면 이 두 數値가 다른 것이 그것도 적은 수치차이가 아니고 거의 배 가까운 차이가 나오는데 이것은 시급히 조절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무슨 정책이 나올 것 아닙니까?

○教育部長官 李海瓚 그래서 저희가 特殊教育院에다 실제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하도록 연구계획을 지시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을 하고 있고 대학교육은 초보적인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데 需要調査를 보다 정확하게 해야 어디에 분포되어 있고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한 수요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特殊教育院에서 지금 需要調査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不用豫算과 移越豫算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공통으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97년도 決算書에서 불용예산과 移越이 많

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97년도 3/4분기로 들어가면서 景氣가 하락을 하면서 經濟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서 정부에서 비상경제대책기구들을 많이 구성을 해가지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해서 운영하도록 지침을 주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야당할 때 저도 政策委議長으로 참석을 해서 비상경제대책위원을 해가지고 정부에 지침을 주었는데 그때 가지고 당시에 인건비도 절감을 하고 경상경비도 절감을 하고 해서 발생한 불용부분이 상당부분은 대개 거기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하나의 不用部分이 발생한 부분은 事業規模를 잘못 책정을 했거나 아니면 환차가 발생하면서 불용이 되는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移越豫算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월예산의 경우는 대개 教育部에서 발생하는 이월예산은 두가지인데 하나는 土地買入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가지고 토지가 매입되지 않으면 공사에 착공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학이전 사업같은 것은 대부분이 그렇게 발생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연히 事故移越되어야 원활하게 집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 이월된 것이고 농어촌 학생 용자금이 불용으로 많이 된 것은 農特稅 豫算이 세수가 감소되고 세수가 감소가 되기 때문에 農漁村學生들에 대한 용자금이 자동으로 불용으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발생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저희 教育部豫算이 어려운 것이 대부분 지방예산의 경우는 저희 예산하고 매칭펀드로 나가는 예산들이 많은데 지방예산이 대개 양여금이라든가 교부금을 배정을 받아서 편성하는 예산이라서 저희 예산하고 매칭이 잘 안되는 시간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이월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內譯에 대해서는 擔當 室局長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우리가 單年度 豫算主義이고 전년 베이스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教育部를 맡고서 내년 예산을 충당할 때 아까 鄭東泳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기본적인 豫算編成의 방침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를 가지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討論을 많이 했습니다. 또 정부 전체도 앞으로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어떻게 잡느냐를 논의를 하고 있어서 큰 방향은 세 가지 정도로 잡힙니다.

하나는 單年度 豫算主義에 빠지면 안되겠다 싶어서 中期財政計劃을 국가차원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국가 전체 중기재정계획을 세울 것이고 저희 教育部도 5개년 중기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간 財政의 需要와 展望을 포괄적으로 잡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두번째 교육예산의 큰 맹점은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전체예산의 65% 가까이가 교사 人件費입니다. 다른 사업예산은 경기가 하향이 되면 바로 삭감이 되어서, 경직성경비의 비중이 더 높아져 가지고 특히 올 하반기와 내년처럼 教育豫算 가지고 사업하기가 매우 어려워져 가는 그런 경직성경비가 매우 높아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각별히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學校施設이 그동안 열악하다 보니까 대개 예산이 교실을 짓는다든가 수용시설을 짓는다든가 하드웨어예산으로 대부분이 편성이 되어서 실제로 교과과목을 개발한다든가 교사들 연수라든가 교과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해준다든가 이런 소프트웨어 쪽 예산은 매우 미미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내년 豫算編成하면서 감작 늘렸습니다. 교육전체 예산중의 85%가 地方教育豫算이고 불과 15%가 고등교육예산이기 때문에 21세기의 高等人力 養成을 요구하는 수요에도 이 구조가 맞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교육시설 예산은 효율화를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소프트웨어라든가 教科課程이라든가 情報化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쪽으로 예산의 비중을 좀 더 높여서 교육내용을 풍성하게 하는 쪽으로 기본방향을 잡아서 올해도 전환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방향으로 5個年の 綜合的인計劃을 세워서 하드웨어에 편중되어 있던 비중을 교육내용을 내실있게 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주어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中期 5個年計劃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제부터는 教育 人件費豫算도 처음 敎職을 시작해서 마지막 교직을 끝날 때까지 일방적으로 호봉이 올라가는 이런 경직된 구

조를 가지고서는 도저히 예산의 탄력성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공무원 전체가 契約職이라든가 年俸制라든가 이런 다양한 급여지급 방식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教育部도 그에 맞추어서 교육예산 특히 人件費豫算의 彈力性を 높여야겠다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피크賃金制 같은 경우도 그런 각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는 시점에는 좀 더 올려 주고 오히려 생활비가 자녀 출가라든가 그래서 좀 적게 들어가는 시점부터는 정제되는 방향으로 가는 피크임금제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도 새로운 재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입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을 기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연말에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 오늘 지적하신 것처럼 왜 移越이 되느냐 왜 不用이나 이런 지적이 많았는데 國家豫算 전체가 이제는 꼭 불가피한 경우는 도리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오히려 이월을 시키고 불용으로 해서 豫算의 效率化를 높이는 물론 舍目的性을 잘 검토를 해야겠습니다라는 妥當性を 검토해 가지고 그것을 예산절감을 잘한 公務員에게는 포상을 해주는 이런 방향으로 합목적성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鄭喜卿委員** 追更으로 바꾸어야지 계획을 잘못 세워서 집행 못한 것에 대해서 賞金까지 준다 하는 것은 예산 운영상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데……

○**教育部長官 李海瓚** 追更까지 끝난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추경을 통해서 재조정하는 것은 바로 바로 하고 추경이 1년에 여러 차례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경 이후에 발생하는 연말에 出張費 같은 것이 남는다거나 예정된 충원이 안되어 가지고 人件費가 남는다거나 事業物量이 예정 보다 축소된다거나 환차손에 의해서 예산이 좀 남는다거나 이런 變動豫算들이 있습니다.

○**薛勳委員** 위원들이 지적하는 부분들은 장관이 이야기한 그것이 아니고 마땅히 써야 하는 부분을 안썼다 이것이에요. 계획이 잘못 된 것, 계획이 무계획적으로 짜여진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장관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委員長 咸鍾漢**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室局長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金成東 企劃管理室長**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教育部企劃管理室長 金成東** 金日柱 委員님, 薛勳 委員님, 朴承國 委員님, 金許男 委員님께서 事故移越 內譯과 不用額의 增加에 대해서 지적 말씀이 계셨습니다.

移越額의 增加는 발생한 원인을 보면 시설사업 등에서 절대공기부족과 납품기간이 부족해서 이월되는 것이 한 83.5%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838억이고 계약체결 및 설계지연이 한 5.4% 그 다음에 환율인상 등으로 외국의 첨단실험 실습 기자재 구매지원이 한 6.8%에 이릅니다.

施設事業의 이월액을 줄이기 위해서 '98년도부터 계상되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基本設計費와 施設費를 분리해서 반영하고 시설공사의 발주 시공단계에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實驗 實習機資材 購入 등 물품구입에 있어서는 조기에 계약체결을 해서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에 不用額의 問題입니다.

不用額이 증가된 主要事由는 세출예산의 절약집행으로 인한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국회에서 예산이 審議·議決된 후 매년 예산을 절약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97년의 경우 정부에서는 一般行政費 事業費에 포함된 물건비성 경비, 각종 유류비, 업무추진비 등을 대상으로 예산을 節約執行했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절약을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하겠습니다.

○**委員長 咸鍾漢**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任東權 學校政策室長**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教育部學校政策室長 任東權** 학교정책실장입니다.

金許男 委員님께서 教育課程改正과 교과용 도서 편찬, 檢定豫算의 30%인 11억2,000만원이 불용되었다는 말씀에 장관님이 답변을 드리면서 제가 상세하게 보고를 드린다고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教育課程審議會를 유사한 것끼리 합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래 233개의 小委員會를 가지도록 되어 있는데 127개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3억

5,000만원을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種圖書 檢定種數를 減縮을 했습니다. 2종도서는 민간인들의 출원에 의해서 저희가 검정을 하는 것입니다. 본래 363종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신청이 적고 202종이 신청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돈이 절약이 되었고 또 초등영어 교과서 검정계획이 본래 4학년에서 6학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으나 예산절감 관계로 4학년만 하고 5학년, 6학년은 좀 더 연구해서 다음에 하기로 결정된 것이 11억2,000만원입니다.

이렇게 不用額이 발생되었습니다마는 '97년12월 30일 제7차 교육과정을 개발 고시하는데 지장이 없었고 또한 6차 교육과정에 의해서 교과용 도서 편찬 검정 및 공급은 학생들의 수업이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저희들이 섬세하게 예산을 예측을 하고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薛勳委員 제가 대전산업대학교 도서관 신축 통신공사의 경우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답변을 안하셨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咸鍾漢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이것으로 大體討論을 終結할 것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會計年度教育部所管 歲入歲出決算은 정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된 것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李海瓚 教育部長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教育部長官 李海瓚 존경하는 咸鍾漢 委員長님과 여러 委員님!

계속되는 國政審議 日程 속에서도 저희 教育部所管 '97年度 歲入歲出決算報告書를 原案대로 접수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教育部所管 決算에 대하여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좋은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教育施策에 저희가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진한 답변에 대해서 또 計數를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委員長 咸鍾漢 오늘 장시간 李海瓚 教育部長官과 關係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는 23일 오전 10시부터 國政監査를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산회)

○出席委員

咸鍾漢	金貞淑	朴承國	李相賢
李源馥	黃祐呂	盧武鉉	薛勳
朴範珍	鄭均桓	鄭東泳	鄭喜卿
金日柱	金許男	金顯煜	

○出席專門委員

專 門 委 員	鄭 富 永
專 門 委 員	尙 元 鍾

○出席國務委員

教育部長官	李 海 瓚
-------	-------

○出席政府委員

教育部	趙 宣 濟
次 官	金 成 東
企劃管理室長	任 東 權
學校政策室長	金 容 炫
平生教育局長	鄭 相 煥
學術研究支援局長	李 基 雨
教育環境改善局長	李 承 茂
教育情報化局長	

○政府側出席者

教育部	
公 報 官	金 京 會
監 查 官	具 寬 書
國際教育協力官	李 鍾 瑞
教育政策企劃官	徐 南 洙
學校政策審議官	具 鶴 鳳
教育課程政策審議官	俞 千 根
教員政策審議官	金 光 祚
總 務 課 長	任 承 彬

○其他參席者

學術院事務局長	柳 江 夏
國史編纂委員長	李 元 淳
國際教育振興院長	李 起 虎
教員懲戒再審委員長	金 淵 洙
教育行政研修院長	高 在 亨
國立特殊教育院長	尹 點 龍
韓國精神文化研究院副院長	李 成 茂



韓國教育開發院長	李 敦 熙
유네스코韓國委員會 事務總長	權 泰 俊
大韓教員共濟會長	金 河 準
私立學校教員年金 管理公團常務理事	林 東 浩
韓國學術振興財團 理事	朴 錫 武
韓國大學教育協議會 事務總長	李 鉉 清
韓國私學振興財團 理事	許 鍾 甲
韓國獎學會理事長	李 秀 千
韓國職業能力 開發院長	李 茂 根
韓國教育課程評價院 企劃調整室長	崔 錫 珍
韓國教育放送院長	朴 興 壽
멀티미디어 教育支援센터所長	呂 運 邦
尖端學術情報센터 研究開發部長	金 成 赫
韓國專門大學教育 協議會事務總長	李 洪 均

### 【報告事項】

#### ○常任委員辭任

委員會	委員名	交涉團體
教 育	曹 雄 奎	한 나라 당

(10월15일자)

#### ○常任委員補任

委員會	委員名	交涉團體
教 育	鄭 東 泳	새정치국민회의

(10월15일자)

#### ○意見提示

##### □口腔保健法案

(10월7일 黃圭宣議員外 50人發議)

10월16일 保健福祉委員長으로부터 관련위원회로서 意見を 提示함

#### ○通 知

##### 1998年度國政監查對象機關承認의件

10월19일 運營委員長으로부터 원안대로 承認되었다는 通知가 있었음

#### ○審査期間指定

##### 教育部所管1998年度豫算案

(10월2일 政府提出)

10월19일, 審査期間을 11월21일까지로 지정함